

5 2025 VOL. 347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
신문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1991-2025

 PT. BOSUNG IND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월간 한인뉴스 5 2025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김종현

편집인 양태화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흥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송기섭, 노병진, 송호진, 고광희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작가 조현영
따나 또라자의 한 주민이 정성스럽게 물소를 씻기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나 또라자에서 물소는 사회적 지위, 부, 명예를 상징하며 장례 의식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중요한 존재다.

Tana Toraja, Sulawesi Selatan
2024.10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8

재인니한인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

11

한인동포대상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

1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 자카르타 토지 및 건물세(PBB)

14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18

[여기가 맛집!] Green Door Kitchen

〈황지영〉



contents

2025. 5. 통권 347호

21	36	56
[디카시 풍경] 커피 〈김준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조연숙〉	[반려동물, 랜선집사] 닭 쫓던 브래디, 미노 따라 삼만리 〈미노〉
22	40	58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21]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인터뷰 2.0] 채움디자인 강수한 대표 〈이영미〉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자카르타 중심에서 미래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다 〈조은아〉
24	45	61
[서상영의 한방칼럼 24] 생활 한의학 8 우울증(심화편)	[KF 뉴스] KF서포터즈 발대식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2 〈고성화, 정성환〉
29	46	64
[솜씨에 반하다] 어변성룡도 〈김희정〉	Hyaang the Yoga 8 〈Michelle〉	예술의 향기를 따라서 걷다 〈박승현〉
30	50	66
[자카르타의 아침] Rory, 꿈이 이뤄졌다 〈손상현〉	바람의 섬, 태즈매니아 〈조은아〉	인도네시아 법 해설(345) 종교법 〈이승민〉
34	54	68
[행복에세이] 달빛 소나타 〈김준규〉	[취미부자 열정고수] K-pop 추고 가드 올려 〈윤정빈〉	생활정보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잇따른 공장 이전, 수출 실적 악화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경고한다.

섬유, 전자,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야미트라 부디센토사,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일본계 전자 업체 PT 산肯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예측 불가능한 세금 정책,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된다는 점이다. 노점, 오토바이 택시, 온라인 판매,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조업의 위기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세수 감소,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세계 시스템,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경제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예측 가능한 세계 개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개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 가져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현)는 4월 22일(월), 한인회 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성금은 한인사회 각처에서 모은 총 13억 루피아(IDR 1,300,000,000)로,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소장 정성웅)와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소장 김재현)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되며 해당 성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구호 활동과 지역 환경 회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 3월 27일(목)부터 4월 23일(수)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돋기 위한 한인社会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을 비롯해 경북·경남 지역과 울산까지 확산되

었고,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산림과 인근 4만5천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김종현 한인회장은 “녹록지 않은 이곳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한인사회 개인 및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웅 경북자카르타사무소 소장은 “한마음으로 온정을 보내주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성금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산불 피해 지원 성금

번호	성금모금 주관 단체	단체명	직책	성명	금액(IDR)
1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임원		회장	김종현	50,00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10,000,000
3			명예회장	박재한	10,000,000
4			고문	김준규	100,000,000
5			고문	김우진	10,000,000
6			고문	손한평	5,000,000
7			고문	신규태	10,000,000
8			수석부회장	김종희	20,000,000
9			수석부회장	양태화	20,000,000
10			수석부회장	이정호	20,000,000
11			수석부회장	이지완	10,000,000
12			부회장	이승준	10,000,000
13			부회장	이승수	10,000,000
14			부회장	최태립	20,000,000
15			자문위원	강선학	10,000,000
16			자문위원	박의태	10,000,000
17			자문위원	조규철	10,000,000
18			자문위원	채만용	20,000,000
19			이사	김일태	5,000,000
20			이사	송진은	50,000,000
21			이사	안창섭	10,000,000
22	기업		PT. TKG Taekwang Indonesia		100,000,000
23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00,000
24	개인		PT. TKG Taekwang Indonesia/ KOFA 부회장	황의성	100,000,000
25			PT. KMK Global Sports / KOFA 명예회장	송창근	50,000,000
26			PT. Sinar Masanda Industri / KOFA 회장	이종윤	30,000,000
27			PT. Hanshin Air Compressore / KOFA총무	유성열	20,000,000
28			PT. Hanyoung Indonesia / KOFA 총장	박길용	10,000,000
29			PT. Asia Chemical / KOFA 부회장	윤범수	10,000,000
30			PT. Assems Indo / KOFA 부회장	박성호	10,000,000
31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 / 수석부회장	김혜정	10,000,000
32			한식당 보신명가 / 대표	이지선	5,000,000
33			PT. Sung Dong II Plastik / KOFA총무	최성미	5,000,000
34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 / 사무국장	최하진	3,000,000
35			PT. Sumber Makmur Sukses / KOFA 회원	윤종찬	3,000,000
36			땅그랑 반튼한인회 / 사무국장	김예형	1,000,00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합산 금액					877,000,000
37	재인도네 시아 한 인회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100,000,000
38			재인도네시아 신발협의회 KOFA		30,000,000
39			KOSA 한인 중소벤처기업협의회		63,000,000
40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50,000,000
41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20,000,000
42			재인니한국인건설협의회 (AKCI)		20,000,000
43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		20,000,000
재인도네시아 한인단체 합산 금액					303,000,000
44	재인도네시아 대구.경북연합회		재인도네시아 대구.경북연합회		120,000,000
성금 총액					1,300,000,000



지난 4월 23일 자카르타 Artha Graha Building 내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에서는 재인도네시아 대구, 경북 연합회(김화룡 회장) 회원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경북 산불 이재민 구호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재인도네시아 대구, 경북 연합회 김화룡 회장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하루빨리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일상이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

일시 : 4월 24일 (목) 10:30 ~ 13:00

장소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1층

재외동포 대상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개최

-범죄 예방부터 출입국 유의사항까지 폭넓은 정보 공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현)는 공동으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사관 1층 강당에서 '동포사회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내 동포단체 및 한인 기업인 등 약 80여 명의 재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동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한인동포의 각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사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내국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강원준 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범죄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생활안전과 출입국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국제관계국 Da Costa 국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과 예방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현지인의 법 인식 부족 및 교육 미비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과 여권관리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 협약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어 김대진 경찰 영사는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해킹, 송금 관련 피싱, 마약 범죄, 투자사기, 도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진화된 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사건 발생 후의 처리절차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개인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지 대사관 자문변호사는 현지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유의사항을 짚으며, 특히 경찰 소환장 수령 시 참고해야 할 점과 현지 법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류완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한인 동포 사망 통계를 제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윤영봉 비자·출입국 담당 영사는 체류 허가 및 출입국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일부 여행사를 통한 공문서 위조 사례, 한인 업체 정직원 사칭 등의 실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미나는 12시부터 도시락 오찬과 함께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현지 재외동포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돋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대사관과 한인회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년 자카르타 토지 및 건물세 (PBB)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4월 8일에 2025년 농촌·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 정책에 관한 주지사령 제281호를 발효하였다. 이번 주지사령을 통해 농촌·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PBB-P2)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한다.

2025년 PBB-P2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PBB-P2 주요 면제

PBB-P2 원금 면제 정책을 통해 2025년도에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 A. 최대 NJOP가 IDR 2,000,000,000(20억 루피아)인 토지, 주택 또는 최대 NJOP가 IDR 650,000,000(6억 5천만 루피아)인 아파트
- B. 개인 납세자
- C. 물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NJOP가 가장 높은 물건 하나만 면제
- D. NIK가 온라인 세금 계정에서 검증되어야 함

2) 2025년도 PBB-P2 감면

이 인센티브는 다음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 ◆ 주요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5년에 납부해야 할 PBB-P2가 50% 감면된다.
- ◆ 2024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PBB-P2 증가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이 감면된다.

3) PBB-P2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PBB-P2 원금 감면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PBB-P2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제공되는 일종의 인센티브이다. 할인 금액은 다음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A. PBB-P2 2025년도

- ◆ 2025년 4월 8일 ~ 5월 31일까지 납부시 10% 할인

- ◆ 2025년 6월 1일 ~ 7월 31일까지 납부시 7.5 % 할인
- ◆ 2025년 8월 1일 ~ 9월 30일까지 납부시 5% 할인

B. PBB-P2 2020~2024년도

- ◆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 할인

C. PBB-P2 2013~2019년도

- ◆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0% 할인

D. PBB-P2 2010~2012년도

- ◆ 2017년 지역 규정 제124호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 기간에 대해 원금 할인 외에 25% 할인이 제공된다

4) 행정제재 면제

가. 할부이자 형태의 행정제재 면제

- ◆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PBB-P2 분할 납부한 납세자에게 해당

나.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형태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PBB-P2 납부자에게 해당

- ◆ 주지사령이 발효되기 전에 PBB-P2 원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행정 제재를 받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지역 세금 청구서 또는 행정 제재 감면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세는 자카르타 지방의 모든 지역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지역 수입원으로서 국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 역시 국민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고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자카르타 지방세무국은 2025년 PBB-P2 인센티브는 납세자의 세무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고 세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자카르타 지방 정부의 지원 형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 세수입을 최적화할 수 있다.

Pusat Data dan Informasi Pendapatan
Badan Pendapatan Daerah Provinsi DKI Jakarta <끝>

2025년 4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정치, 사회〉

프라보워·메가와티,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화, 인류애, 형제애에 헌신한 세계적인 도덕적 지도자”라고 추모하며, “분열된 세계 속 희망의 등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서거 소식을 깊은 슬픔 속에 접했다”며 “세계는 평화와 인류애, 형제애에 헌신한 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교황의 역사적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회상하며, “그의 방문은 인도네시아 가톨릭 공동체뿐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모든 국민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의 방문은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인도네시아인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기억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교황이 생전에 일관되게 전해온 소박함, 사회정의, 종교 간 연대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이것이 인류를 위한 영속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도 교황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로 피오포 대주교 앞으로 조전을 전달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서거는 가톨릭 공동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상실”이라며, “그는 평등과 세계 연대를 지향한 영적·도덕적 지도자였다”고 회고했다. 메가와티는 2024년 2월 7일 바티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에서 교황과의 사적인 만남을 회상하며, 자신이 교황으로부터 위촉받은 ‘스콜라스 오꾸렌테스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지부’ 회장직도 언급했다.

“2024년 자예드 인류형제상 심사위원으로 위촉 받았던 일과 올해 초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은 제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뇌졸중과 심장병이 주요 사망 원인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뇌졸중과 심장병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디킨 장관은 17일 서부칼리만탄주 쿠부 라야(Kubu Raya) 지역 공공병원 착공식에서 “인도네

시아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라며 “이어 심장병과 암 등 질병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군인과 경찰 등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뇌졸중, 심장병, 암으로 인한 사망이 신체적 충돌이나 폭력에 의한 사망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들은 총에 맞거나 다치는 걸 피하기 위해 훈련에 열심이다. 하지만 건강관리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무기보다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지적했다.

사디킨 장관은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서부칼리만탄 주도인 폰티아냑이나

자카르타, 혹은 해외로의 환자 이송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부 라야에 건설 중인 이 병원은 우선 진료가 필요한 주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될 공공병원에는 CT 스캔, 심혈관촬영기 (Cath Lab), 심장초음파 장비 (echocardiography ultrasound)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까르띠니의 날’... 인니 여성 교육의 문을 연 선구자

매년 4월 21일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은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의 선구자이자 민족적 자각의 씨앗을 뿌린 개혁가, 까르띠니 (Raden Adjeng Kartini)의 생일로, 1964년 수 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국가 독립영웅으로 지정되며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1879년 4월 21일, 중부 자바의 즈파라 지역에서 태어난 까르띠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란 여성이다. 그의 아버지 소스로 넝그랏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에서 행정관료인 부빠띠 (bupati)를 지낸 자바 귀족 출신으로, 까르띠니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창한 네덜란드 어를 구사하며 서양 문물과 사상에 눈을 떴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12세가 되자 까르띠니는 당시 자바 귀족 여성의 관습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결혼 전까지 집 안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독서와 편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유럽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에 대한 사상을 키워갔다. 특히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윤리정책 책임자였던 아벤다논 (J.H. Abendanon)과의 교류는 그의 생각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결국 까르띠니는 중부자바 렘방 (Lembang) 지역 부빠띠의 네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지만, 진보적 성향의 남편의 지지를 받아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의 꿈은 끝내 현실로 꽂피지 못한 채, 첫 아이를 낳은 지 나흘 만에 출산 후 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고작 25세였다.

까르띠니의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은 사후에 발간된 서한집 《어둠에서 빛으로 (Out of Darkness to Light)》를 통해서다. 이 책에는 그가 네덜란드 친구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가 수록 돼 있으며, 여성 교육의 열망과 민중을 위한 삶에 대한 포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서한집은 네덜란드에서 5쇄를 찍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까르띠니의 정신은 이후 까르띠니재단 설립과 함께 여성 교육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여성학교가 속속 세워졌다. 그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삶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교육과 자각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도약이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소녀들은 매년 까르띠니의 날이 되면 그녀처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식에 참여하며, 선구자의 발자취를 기린다.

〈경제 비즈니스〉

‘폰독 인다 몰’ 개발자, 무르다야 푸 별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로 ‘폰독 인다 몰(Pondok Indah Mall)’과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akarta International Expo, JI-Expo)’를 건설한 무르다야 위디야위마르따 푸(Murdaya Widyawimarta Poo) 회장이 4월 7일 싱가포르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무르다야는 인도네시아 유통 및 부동산 산업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폰독 인다 몰과 JIExpo 등 주요 상업 시설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현대 인도네시아의 소비 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신문배달부에서 억만장자 사업가로

1946년 1월 12일, 동부자바 주 블리따르에서 태어난 무르다야는 신문 배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1972년에는 건설 회사를 설립하며 사업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그는 건설, IT, 철강, 농업,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복합 대기업 ‘센트럴 씽따 무르다야(Central Cipta Murdaya) 그룹’을 창립했다. 그가 이룬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자카르타 박람회장을 현재의 JIExpo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곳은 현재 자카르타에서 가장 불비는 전시, 컨벤션 센터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는 폰독 인다 몰을 개발한 ‘메트로폴리탄 끈자나(Metropolitan Kentjana)’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다. 1991년 문을 연 폰독 인다 몰은 이후 PIM 1, PIM 2, PIM 3, 스트리트 갤러리까지 확장되며 자카르타 최고의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사업 외에도 무르다야는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98년 정당에 가입한 뒤 회계 책임자와 지역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인도네시아 국회의원(DPR)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1971년 시티 하르따띠 무르다야(Siti Hartati Murdaya)와 결혼해 빠즈나(Pajna), 메트라(Metra), 우뻬이차(Uppeicha), 까루나(Karuna) 등 네 자녀를 두었다.

2024년 기준, 무르다야는 『포브스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부자 순위에서 45위에 올랐으며, 순자산은 약 12억 달러(약 19.6조 루피아)로 추정됐다. 그의 자산은 고급 부동산, 팜오일 농장, 학관 제조, 해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이홍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찌레본에 위치한 이홍 노바텍스(PT Yihong Novatex Indonesia)가 지난 달 노동자 파업으로 일시 중단됐던 공장 운영을 재개하면서, 해고된 근로자 1천여 명이 복직될 전망이라고 4월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중재에 나선 인도네

시아 인력부 산업관계·사회보장국의 인다 앙고로 푸트리 국장은 이날 “이홍 노바텍스가 해고된 근로자 중 200명을 복직시켰다”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홍 노바텍스는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용 신발 및 섬유 제품을 생산해온 중국계 기

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0일,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공장 운영 차질과 고객사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주문 감소로 인해 1,126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르바란 연휴 전에 임금, 퇴직금, 휴일 수당이 지급됐다.

인다 국장은 “모든 해고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

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 노바텍스 파업 사태는 세 명의 직원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됐으나, 전체 파업으로 확산되었다. 나흘 동안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 측은 지난 3월 전격 공장 운영을 중단했고 르바란을 앞두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1,126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르바란 연휴 후 ‘금 투자’ 열풍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 이후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4월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 구매자들이 국영 전당회사 빠가다이안(PT Pegadaian)의 자회사 갈레리24(Galeri24)에서 금을 사려는 구매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갈레리24는 1그램부터 1킬로그램까지 다양한 중량의 금괴를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의 주얼리, 맞춤형 기념 금, 12.5킬로그램의 대형 금괴까지 폭넓은 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르바란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의 갈레리24 지점들, 특히 자카르타 살렘바 지점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객 아만다 씨는 “르바란 보너스를 어떻게 저축할까 고민하다가, 은행에 넣으면 금방 써버릴 것 같아 금을 사기로 했다”며 “갈레리 24에서는 다양한 중량의 금을 선택할 수 있어 예산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레리24 드위 하디 아트마카 책임자는 “금은 유동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에 강해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며 “갈레리24에서 판매되

는 금의 75%는 5그램에서 100그램 사이의 금괴이며, 나머지 25%는 주얼리 형태”라고 밝혔다.

갈레리24는 고객들이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찌愆 으마스(Cicil Emas)’와 ‘파봉안 으마스(Tabungan Emas)’ 등 다양한 금 기반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 예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의 금융 문해력 향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금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선호하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금 가격의 상승세도 기대되고 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Green Door Kitchen

황지영(자카르타 거주) ●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 레이 울든 버그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 1의 장소인 집, 두 번째 장소인 일터나 학교 외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마음 편히 머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동네 카페나 공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방이나 도서관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덧없이 보내는 시간이 결코 실속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목적 없이 들려도 되는 곳, 성별이나 나이 상관없이 마음 편히 들려 한숨 돌려도 되는 곳이 있나요?

제가 그런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맛집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곳은 Green Door Kitchen입니다. Kelapa Gading에 위치한 Mahaka Square의 Ruko에 있는데요. 쇼핑몰 안에 위치해 있지 않다 보니 꽤 숨겨진 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식당은 아침 8시부터 문을 여는데요, 브런치 메뉴도 같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식당 이름에 걸맞은 큰 청록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흰 대리석 테이블들과 그레이, 옐로우, 그린 톤의 소파, 그레이 블랙이 조화로운 몰딩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커피, 주류, 양식과 인도네시아 현지식까지 메뉴 구성이 아주 다양하여 메뉴 선정에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방문하셨다면 브런치 요기가 될 만한 샐러드, 샌드위치, 버거 같은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저녁에 방문하셨다면 스테이크, 파스타 같은 요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요리로 Dragon Fruit Bowl(121,600 루피아++)입니다. 아사이 볼을 아시나요? 하와이에서 시작된 아사이볼을 스무디처럼 갈아서 그 위에 과일, 그래놀라, 꿀 등을 올려서 먹는 간식이나 아침식사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사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비슷한 보라색 계열인 용과로 스무디를 만들어 그 색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바나나, 딸기, 견과류가 올려져 나오는데요. 시원하고 라이트하게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Monte Cristo (157,300 루피아++)입니다. 몬테크리스토란 세 조각의 빵 사이에 햄, 치즈를 넣은 뒤, 달걀물을 묻혀 버터에 튀겨낸 샌드위치 인데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걸바속촉의 정석이지요. 대부분 음식 역사가들이 몬테크리스토가 1950년도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식당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달콤한 맛 보다는 짭짤한 맛이 많이 나는 샌드위치입니다. 그위에 슈가파우더나 메이플 시럽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식당은 위에 블루베리 쟈이 올라가 있어서 짭조름한 샌드위치와 달달한 블루베리잼의 조합이 아주 편찮았습니다. 이 요리 또한 커피와 함께 간단한 브런치 식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요리로 Double Smashed Burger (200,200 루피아++)입니다. 자 이제 조금 헤비한 것으로 넘어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즙이 팽팽 터지는 패티 두 장과, 녹아 꾸덕한 치즈,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고 계란 후라이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버거는 계란 후라이가 킥인 데요. 고소한 계란 노른자와 패티를 함께 베어 물면 풍미가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질리셨다면 고급 진 수제버거의 버터 풍미와 육즙 가득한 이 요리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요리는 Spaghetti Bolognese (178,800 루피아++)입니다. 볼로네제 파스타를 아시나요? 스파게티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진 고기, 당근, 양파, 셀러리 다진 것을 볶은 후, 와인과 토마토를 넣고 낮은 불에서 장시간 서서히 끓여 만든 붉고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 면을 넣는데요. 이 소스는 소고기 양지만을 사용해 만드는데, 양지와 함께 토마토와 와인을 오랫동안 끓여 고기 고유의 맛을 우러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터 급식에서, 경양식집에서 먹던 토마토 스파게티가 이 볼로네제 파스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가끔 어릴 때 먹던 이 순정의 맛이 그리워 한 번씩 볼로네제를 찾게 되는데요. 이 스파게티로 어릴 적 향수를 느껴보세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Char Siu Pork Jowl (236,000 루피아++)입니다. 일본식 차슈 덮밥인데요. 위에 차슈가 약간의 야채들과 토핑되어 있고 아래 흰 그레이비소스 (육



춥소스)가 깔려져있습니다. 차슈란 원래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양념해서 굽거나 조린 음식을 ‘차사오’라고 부르던 것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차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간장베이스에 졸여 만드는 고기 조림 같은 것인데요. 이 짭조름하고 풍미 가득한 고기를 흰 그레이비소스에 비벼 먹어 보세요. 한 끼 듣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저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Belgian Waffle with Ice Cream (114,400 루피아++)입니다. 이 식당에는 여러 가지 케이크 종류들도 많고, 디저트가 많았는데요. 약간 옛날 카페들에서 먹던 와플이 생각나 추억에 젖어 주문해 보았습니다. 와플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각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1600년대 미국에 소개되면서 와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와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크게 미국식, 벨기에식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벨기에식은 전통적으로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킨 반죽에 달걀 흰자를 넣어 굽는 것으로 빵 자체는 달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과 휘핑 한 크림을 얹어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식은 이스트 대신 베이킹 과 파우더를 넣어 반죽하고 설탕을 많이 첨가하여 시럽을 뿐만 아니라 달게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디저트, 브런치로 많이 먹는 것이 미국식입니다. 사실 이 식당의 것도 미국식인데 명칭은 벨기에 와플이네요. 이 추억의 맛 와플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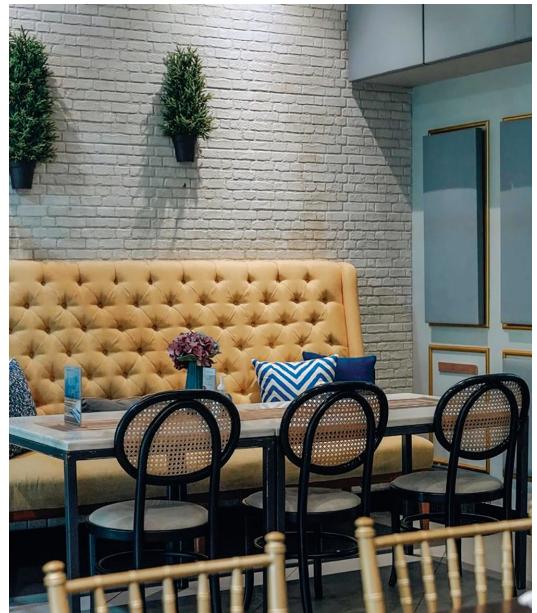
그 외에도 와인과 스테이크 종류도 많으니 기념일이나 멋진 식사를 하고 싶으신 저녁에 스테이크 드시러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꽉꽉하고 고된 하루에 나만의 제3의 장소인 숨구멍을 잘 만드셔서 삶의 가치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린 식당이 여러분의 제3의 장소로 역할을 특별히 해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6월에 더 멋진 제3의 장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식당 정보: Green Door Kitchen〉

음식 종류 : 양식, 인도네시아 요리
가격 대 : Rp 300,000~500,000/2인 기준
영업 시간 : 월~일 오전 08:00~오후 100
주 소 : Sports Mall Mahaka Square
Kelapa Gading Blok HF 3
Unit B 18, Jl. Raya Kelapa Nias
No.23 Lt. Dasar, Klp. Gading
Jakarta 14240

※ Google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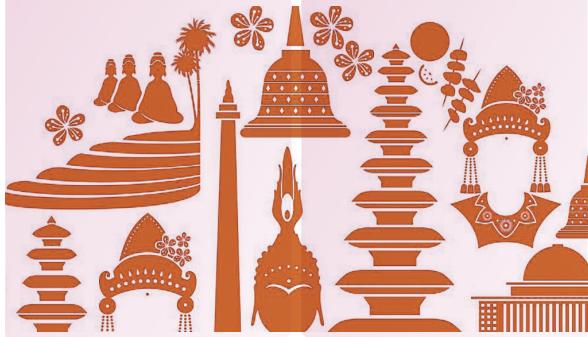


커피

무채색의 향기
혀끝에 감기는
쓰디쓴 고뇌 !
언어의 불쏘시개로
아픔을 태운다

글 : 김준규

이미지: stocksnap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비전쟁

지난 호에 이어

제7 장 마지막 라마단 - 운명의 마글랑 회담

사실 휴전협상이 최초 시도된 것은 1827년 중반부터였습니다. 당시 드콕 장군은 영국인 상인 윌리엄 스타버스(William Starvers)와 아랍계 출신인 알리 칼리프(Ali Chalif)를 통해 디포네고로 왕자와 비공식적인 소통경로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꼼페니의 드콕 장군께서는 왕자님, 아니 술탄 전하께서 족자 술탄국의 왕좌에 올랐다면 이 전쟁은 애당초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탄식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연히 술탄 전하만의 왕국과 끄라톤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이 전쟁을 면취 주시면 자바의 어느 땅이든 떼어 드린다 하십니다. 그 보다 더 큰 사례도 하실 것입니다. 드콕 장군께서는 네덜란드 동인도군뿐만 아니라 술탄 전하를 따라 봉기한 자바의 군대 역시 이 전쟁에서 더 이상 피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술탄 전하, 그리고 유럽인들도 알고보면 다 말이 통하는 인간들입니다. 피부색과 종교를 뛰어넘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처럼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 정직하게 동업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파산한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스타버스와 칼리프는 디포네고로 왕자의 사령부 막사에서 아직도 ‘꼼페니’란 단어로 총독부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워털루 전쟁에서 쓰였던 구형 화포를 유럽에서 살고 와 팔려고 하던 자리였습니다. 혀에 꿀이라도 바른 듯 술술 흘러나오는 달변에 디포네고로 왕자는 퍼식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토록 네덜란드를 옹호하는 분들이 어찌 우리에게 화포를 팔러 오신 거요? 우리 진영을 나서면 네덜란드군에게 잡혀 처형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오?”

“술탄 전하, 저희들은 정치를 모르는 장사치들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무기를 팔러 다니는 것은 저희 무기를 산 군대가 결국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죠.”

“하하, 그대들을 전선으로 내몬 신념의 이름은 신앙이나 애국심이 아니라 돈이 아닌가 싶소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정색을 했습니다.

“드콕 장군께서 내게 땅을 떼어주신다 하셨다면 아마도 큰 착각을 하실 것 같소. 자바땅의 주인은

자바의 왕국들이지 네덜란드가 아닌데 어찌 그에게 자바땅을 떼어줄 권리가 있다는 것이오? 오히려 네덜란드는 북부 해안지대의 점령지들을 즉시 자바의 왕국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고 만약 이땅에 계속 머물겠다면 모두 할례를 받고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할 것이오.”

유들유들한 미소로 무장하고 있던 스타버스와 칼리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제시한 전쟁종식의 조건들은 강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라자 디포네고로 왕자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네덜란드인들이 자바땅에서 살고 싶다면 굳이 쫓아내거나 위해를 가하진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들의 상업행위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소. 네덜란드의 이익을 위해 우리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단 말이오.”

기독교인들인 네덜란드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리 없었지만 이것은 디포네고로 왕자가 이슬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뿐 아니라 점령지 반환이나 상업행위 금지 역시 결코 네덜란드가 수용할 리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마글랑의 네덜란드 본진으로 돌아온 두 상인에게서 그러한 보고를 받은 드록 장군은 언짢은 표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디포네고로 왕자가 그런 추상적인 목적만으로 자바 전역의 봉기를 일으켰을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수 차례 서한을 보내 그를 회유하며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집요하게 물었죠. 들어줄 만한 조건이라면 대충 절충을 보고 이 소모적인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포네고로는 “자바섬에 이슬람 지도자가 다스리는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 전쟁의



마글랑의 디포네고로 상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드록 장군이 원하던 대답도, 들어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드록 장군에게 보낸 자바어 서한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비쳤습니다.

친애하는 드록 장군에게

내가 가진 진의가 무엇이냐는 장군의 질문에 난 이 자바땅 전역에 이슬람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 답하겠소. 당신이 진실로 이 자바 땅의 이슬람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 역시 당신과 기꺼이 강화할 용의가 있소. 하지만 당신은 그 의지를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오.

그는 이슬람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자바땅에 이슬람국가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궁극적인 책임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당시 막 메카 순례를 떠나려던 끼아이 뻥훌루(Kyai Peng-hulu)라는 이슬람 학자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오. 당신이 정말 메카에 닿는다면,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이요.

혹시 노력 끝에 거기서 당신이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디 내게도 알려 주시고, 모든 이맘(Imam)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내 희망이 선지자 무하마드에게 전해지게 해 주오. 알라의 힘을 입어 더욱 강해지도록 전력을 다해 기도해주오.

자바땅이 알라의 발앞에 입맞추는 신의 나라가 되도록 빌어 주오.

정녕 신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뻥훌루여, 속히 다시 돌아와 주시오.

(다음 호에 계속)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한의학 8

우울증 (심화편)

세상에는 참 많은 병이 존재합니다. 가벼운 감기나 타박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나 심장·뇌 질환까지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중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병들도 있죠. 오늘 이야기할 우울증도 그런 병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어느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일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병. 자신도 모르게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진맥을 하고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우울함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우울증을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방치될 경우 다른 큰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인간관계를 무너뜨려 사회적 고립까지 초래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삶에 대한 의욕을 꺼고 희망과 활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에게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릴 때면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겪고 사는 거 아닌가요?”

“크게 잘못되거나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두에게 말씀드리기보단,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어떤 분은 당황해서 대화를 피하시고, 또 어떤 분은 열린 자세로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은 곧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아질수록, 우울은 점점 짙어집니다. 다시 말해 질문의 해답을 스스로 정의하게 되면 우울은 멀어지게 됩니다.

외모, 학업,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육아, 경제상황, 사람관계, 건강문제, 미래의 불안감, 노화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 주변인의 사망, 자녀와 배우자 문제, 남들과 비교, 정체성 혼란 등 그 원인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삶에 대한 회의－삶의 불만족－삶의 익숙함－삶의 불확실성

■ 삶에 대한 회의

특히 중년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 마음엔 혼들림이 생깁니다.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사춘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삶의 불만족

비교에서 비롯된 불만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릴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결국 방향감각을 잃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의 상황에는 불만이 없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에도 깊은 불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 삶의 익숙함

“부모님도 그러셨고, 친구들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원만한 사람관계를 위해 내가 참고 양보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만약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일에,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늙었고 병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입고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각자의 특수성을 존중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국, 용기, 도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나답게 바꾸기 위한 ‘선언’과 그걸 실천에 옮기는 도전정신, 그리고 꾸준함이 해답입니다.

■ 삶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길을 찾는 일은 두렵고 막막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고 저 앞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불확신과 절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불분명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전 날이 어둑해지고 바람이 거칠어지듯 전조증상을 보고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헛된 수고를 하는 것보다 현재에 충실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 우울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 면역력: NK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켜, 염증수치가 높아지게 만듭니다.
-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질환, 심혈관질환, 치매, 파킨슨 등 만성질환과 노인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소화기능: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식욕저하, 소화불량을 야기하고, 폭식이나 거식증 같은 증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기타: 수면장애, 변비,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 전반적인 건강 저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맛있는 음식도, 재미있는 일도 감흥이 없다.
-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
- 자주 술, 담배, 카페인을 찾는다.
-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 무기력하고, 목표도 의욕도 없다.
- 이유 없이 불안하고, 슬프고, 답답하다.
-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 대인관계를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 활력과 생기를 잃고 있다.
- 스스로 우울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 화병 vs 우울증

화병과 우울증은 ‘부부’ 와 같은 관계입니다.

화병이 양(陽)의 개념이라면, 우울증은 음(陰)의 개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로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속으로 삽힙니다. 화병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결 방법

1. 삶의 낙을 찾자

옛날 한 동네에 소문난 부자 윤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쌓았지만, 인색한 성격 탓에 사람들의 덕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장터나 주막에 나가면 사사건건 값을 깎으려 들었

고, 그런 모습은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책을 사려다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책을 사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윤대감은 병풍을 젖히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꿀단지였고, 다른 하나는 금덩어리가 가득한 항아리였습니다. 윤대감은 기분이 나쁠 때마다 꿀을 한 숟가락 퍼먹고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금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고, 꿀의 달콤함은 그의 기분을 녹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쉴 틈도 없이 살아가며, 정작 마음 편히 쉬는 법, 기분 전환하는 법, 즐거워하는 법을 잊고 지냅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나를 위한 시간’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러나 윤대감처럼, 단 몇 분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우울감이나 피로감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꿀단지와 금항아리’를 떠올리면 기분이 풀리고, “삶의 낙이 있다”, “기가 산다”, “흥이 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반려 식물, 혹은 애착이 있는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낙이 필요합니다.

2. 자존감을 회복하자

1)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다-적절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표현은 오히려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천상천하 유아독존-자신은 이 세상에 유일하며 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남들이 뭐라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3)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허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아껴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4)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3.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긍정적 사고방식’이지만, 나쁘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될 것이다”는 기대와 함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함께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 우울해지고, → 기분이 다운되며 → 활력을 잃고, → 두뇌 회전도 느려집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온하면,

→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하고 →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 어려움 앞에서 능동적으로 해결점을 찾고 →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며 → 조급하지 않고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심리적 안정이 곧 성공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여유를 만들어 두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4.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다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힘을 잃고, 남의 선택에 끌려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하기에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내 삶의 방향은 스스로 정하되, 나의 부족함은 솔직히 인정하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많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너무 힘들 땐, 잠시 기대어 쉬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돈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며,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을 줘야 주는 것만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인연을 이어주는 것만으로 고민과 우울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은 어디까지나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정말 내 길이었을까?” “이 모든 선택은 나의 것이었을까?” “왜 지금 나는 불안하고 외로운 걸까?” 그렇게 삶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울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됩니다.

우울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질문이고, 혼자서 꺼내기 힘든 내면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질문의 방향을 함께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자가 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몸이 주는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공부하고, 고심하고, 통찰을 기르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과 고통과 침묵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는다면, 우울이라는 어두운 길도 결국 인생의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누구든 진심으로 그 해답을 찾고 있다면, 그 길 끝엔 반드시 빛이 있다고.’

韓方



어변성룡도

(魚變成龍圖)

가족을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

나는 말 없이도 너를 이해하고,
큰소리 없어도
너는 깊은 잠에서 나를 깨운단다.
단지 하나의 눈빛과 하나의 소망으로.

나의 아이야, 너는 나의 인생에 진실하고도 유일한 진리란다.
너는 나에게 슬픈 기억이며, 다정한 그리움이며,
희망이요, 확신이란다.

헨리크 골드슈미트(Henryk Goldszmit)의 글 중에서

작가: 김희정 (목향민화협회 회원)

어변성룡도란?

물고기가 물살을 뛰어 올라 용으로 변한다는 등용문(登龍門)의 고사를 그린 그림이다. 중국 고사에 원천을 둔 이야기로 큰 물고기가 물살이 세고 거친 중국의 용문(龍門)에 뛰어 올라 용이 되었다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가 사대부 남성들이 가장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변성룡은 과거 급제 혹은 출세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인기가 높았다.



Rory, “꿈이 이뤄졌다.”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로리(Rory)가 마침내 2025 마스터스 토너먼트(Masters Tournament)에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면서, 전 세계 골퍼 중에 6번째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Career Grand Slam)의 꿈을 이루었다. 이제 그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그린재킷을 입고, 챔피언스 디너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잭니클라우스(1966년) 이후 34년 만에 타이거 우즈(2000년)가, 다시 25년 만에 로리 맥길로이가 달성했다.

나는 로리의 마지막 라운드를 생중계로 보기 위해서 초저녁에 잠시 눈을 붙인 후 밤을 꼬박 지새웠다. 새벽 3시 반경쯤, 13번_파 5홀에서 세컨드 샷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로리의 우승이 거의 확실해 보였고, 남은 경기는 내일 아침에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순간 패트론의 안타까운 탄성소리와 함께 화면에서는 웨지로 친 공이 해저드 지역으로 굴러들어가고 있었다. 다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잠이 짜 달아났다. 결국 아침 까지 연장전 서든데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리(Rory)는 8살이 되던 1997년에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그린 재킷을 입는 것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17살이 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 성장했고, 2011년 US 오픈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4년 PGA 챔피언십, 2014년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대회전까지 메이저 대회 4승, PGA 투어 28승의 화려한 경력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17번의 도전을 통해 2022년 한 번의 준우승과 8번의 톱 10 진입, 두 번의 컷탈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전이 특별했던 것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과 함께 달성하게 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는 더 큰 왕관의 무게가 지난 11년 동안 오거스타 내셔널(Augusta National)에 올 때마다 그의 어깨를 짓눌러 왔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했지만 대부분의 경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5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가 끝나고 로리 맥길로의 인터뷰 내용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고,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가 11년 동안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을 위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도전하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교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Like, my dreams have been made today."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마스터에서의 우승을 꿈꿨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 스스로 마스터스 챔피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긴장도 됐고, 골프 코스에서 보낸 것 중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다. 아침부터 속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식욕이 별로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느낌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마지막 라운드를 저스틴 로즈와 함께 했지만, 나는 점증력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재밌는 건 첫 홀의 더블보기가 긴장을 풀어준 것 같다. 두 번째 홀 티잉그라운드로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몇 년 전 존 람이 더블을 기록하고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비록 더블보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하루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페어웨이와 러프에서의 플레이는 매우 까다로웠고, 그린이 얼마나 단단하고 빠른지 어느 순간 마스터스라기보다는 US 오픈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 1번 홀에서 더블, 13번 홀에서 더블을 기록하고도 다시 반등한 것이 자랑스럽다. 마스터스 챔피언 중 한 명이라도 이번 주에 4개의 더블을 기록한 선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첫 번째 선수일 수도 있다.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페팅을 한 후, 마지막 그린에서 내 몸에서 나온 것은 14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1년 동안 얹눌린 감정이었다. 그다지 기쁜 느낌은 없었다. 모든 것이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기쁨은 그 직후에 찾아왔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눌려왔던 감정이 흘러나왔다.

2011년(오거스타 내셔널에서 9개 홀을 남기고 4타 차 선두를 지켰을 때)에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요일 아침에 사물함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Angel Cabrera가 보낸 쪽지가 있었는데 그냥 행운을 빌어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Angel은 2011년 마지막 날에 함께 플레이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었다. 고맙게도 마침내 일을 끝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2014년 8월(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부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온 것 같다. 거의 11년이 흘렀고, 마침내 메이저 우승뿐만 아니라 커리어 그랜드 슬램도 달성했다. 그동안 그랜드 슬램을 이룬 5명의 선수 그룹에 합류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그린 재킷을 입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참가할 때마다 가장 긍정적인 태도로 플레이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그랜드 슬램은 짊어지기에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고맙게도 지금은 짊어질 필요가 없어 자유로워졌다. 매년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 골프 그랜드 슬램 달성을 위해서는 영원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매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그랜드 슬램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 제가 더 나은 선수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매년 다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지만 반드시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일요일 후반 9홀에서 ‘내가 또 이걸 놓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클러치샷(clutch shot_필요할 때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샷)을 놓치지 않았고, 그 점이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적으로 지친 한 주였는데,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정말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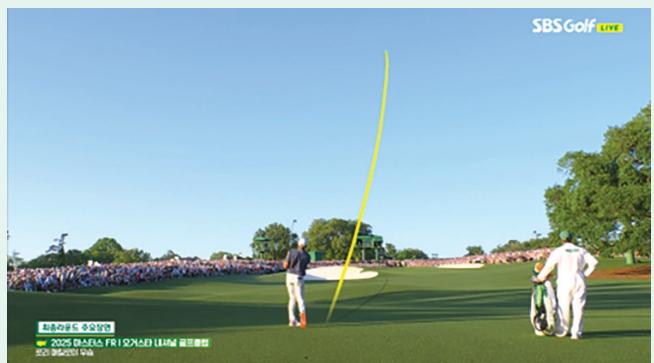
2011년 후반 9홀에서 선두를 달리던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21살의 젊은이였다. 아마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성장해야 할 것이 많은 젊은이였고, 어쩌면 그 때의 나는 내가 왜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 내가 왜 그것을 놓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패배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Just stay the course. Just keep believing’라고 말하곤 했다.



15번_파 5홀, 7번 아이언 세컨드 샷, 버디



17번_파 4홀 세컨드 샷, 버디



연장 18번_파 4홀 세컨드 샷, 버디



저는 말 그대로 제 꿈을 이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 Rory의 클러치샷 (clutch shot_필요할 때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샷)

이번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로리(Rory)가 반드시 우승을 하고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동안 그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한결같은 루틴이었다. 매번 샷을 할 때마다 그가 느낄 긴장감, 압박감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는 한결같은 루틴으로 끝까지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의 서사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타이거 우즈를 보면 영감을 받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로리의 그랜드 슬램 달성 모습을 통해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가슴 벅찬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스터스 우승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 커리어 그랜드 슬램 (Career Grand Slam) 달성자 명단

- ◆ 진 사라젠 (Gene Sarazen): 1935년 (마스터스 우승으로 달성)
- ◆ 벤 호건 (Ben Hogan): 1953년 (디오픈 우승으로 달성)
- ◆ 게리 플레이어 (Gary Player): 1965년 (US 오픈 우승으로 달성)
- ◆ 잭 닉클라우스 (Jack Nicklaus): 1966년 (디오픈 우승으로 달성)
- ◆ 타이거 우즈 (Tiger Woods): 2000년 (디오픈 우승으로 달성)
- ◆ 로리 맥길로이 (Rory McIlroy): 2025년 (마스터스 우승으로 달성)



달빛 소나타

김준규(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달빛에 관한 관심이 오히려 엉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시대를 돌아가 보면 사랑, 낭만, 문학을 말할 때, 달빛을 빼놓을 수 있을까?

현대 문명의 산물인 전기의 등장으로 달빛의 아름다움은 우리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 가는 듯하다. 옛날에는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달빛은 순박한 등불이며 정다운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외롭고 슬픈 자에게 위안을 주며 가난한 자의 아픔을 삭이는 동무가 되어 주었다. 달빛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외로움이며 위안이며 사랑이다.

윤동주 시인은 외딴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보고 자화상을 발견하였다. 조선의 멸망과 암울한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시인이 느끼는 절망과 외로움이 극에 달하던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의 외딴 우물을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후략〉

– 윤동주의 詩 「자화상」에서

후렴에서 시인은 우물안에 비친 달과 자신의 모습에서 무섭게 다가오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미움으로 바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험난했던 시대적 상황이 미움으로 발현된 것 같다. 사람의 눈이 어떤 형체를 보고 인식하는 것은 빛의 반사에 따라 수정체에 인식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달빛은 빛의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 모든 형상은 잔잔한 음영과 암시를 발산하며 달밤은 은근하며 오묘하고 때로는 괴기스럽다.

달빛이 뿌려진 눈위를 걷노라면 “뽀드득, 뽀드득” 경쾌한 음률이 들려온다. 물결 위에는 은박지를 뿌려 놓은 듯 잔잔한 달빛이 내려와 무수히 반짝이고 연인들이 손잡고 걸어간 백사장의 발자국엔 떨어진 달빛이 잔잔한 회억을 불러온다.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던 베토벤은 외로움과 고독에 심취하여 달밤의 아름다움과 서정을 토대로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토벤이 남긴 생애 최대 걸작 중 ‘월광곡’이 그러하다.

베토벤이 어느 날 달빛을 벗 삼아 산책하는 도중 작은 오두막집을 지나게 되고 악보도 없이 피아노를 치는 눈먼 소녀를 발견하게 된다. 소녀는 베토벤의 방문 소식을 듣고 크게 감격하며 선생님의 음악을 들려 달라고 했다. 베토벤이 오두막에서 소녀에게 선사한 곡이 그 유명한 “월광곡”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소설 ‘장크리스토프’는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 사랑, 절망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도 달밤의 풍경이 수없이 등장한다. 사람, 짐승, 별레, 모두가 잠든 달밤의 산책은 외로움이며 그리움이다.

멀리 떠나간 어릴 적 친구가 그립고 담장 너머 포근한 꿈속에 잠들고 있을 사랑하는 여인이 그립다. 나무와 숲은 어둠의 장막으로 에워싸고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언덕에서 꿈속처럼 밀려오는 추억의 조각들이 그립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여기서 아프면 병원까지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키 작은 관목들이 듬성듬성한 사이로 붉은 흙이 다져진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였다. 새벽 6시에 출발해 달리고 있지만 해가 지고 있는데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프면 어쩔 뻔했을까.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이동하고, 다시 파푸아 남단 머라우께까지 비행기를 네 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차로 8시간을 달려 도착한 파푸아 섬 내륙의 아시키 마을. 긴장한 탓이었는지, 사는 동안 아프지 않았지만 자카르타에 도착하자 바로 배탈이 나서 한 달 이상을 고생하기도 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거나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면 나 역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곤 했다. 1997년 가루다항공기 152편 추락사고, 2005년 만달라항공 091편 추락 사고, 2014년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8501편 추락 사고, 2015년 인도네시아 공군 수송기 추락 사고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도 희생된 끔찍한 항공 사고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자카르타에 살면서도 자잘한 교통사고나 2002년 대홍수와 지진을 직접 겪었고, 2004년 아체 지진, 2006년 족자카르타 지진과 므라삐 화산 폭발, 2009년 빠당 지진, 2010년 므라삐 화산 대폭발, 2018년 빨루 지진과 쓰나미 등 수백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낸 대규모 자연재해 소식은 죽음이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삶의 취약성을 절감하면서, 나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인도네시아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연재해였던 반면, 한국은 교통사고와 암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불과 20여 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인도네시아는 뇌졸중, 심장병 등 비전염성 질환이 사망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죽음의 풍경이 빠르게 변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비일상도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분명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두봉 주교의 소천 소식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며 희망과 감사를 표했고, 공개된 유언과 유산을 통해 그가 오랜 시간 죽음을 준비해왔음을 보여주었다.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프랑스계 한국인 두봉 주교 역시 선종 직전까지 또렷한 의식으

로 성사를 청하고 감사를 표하며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했던 삶을 마무리했다. 이분들의 모습은 내가 평소에 ‘좋은 죽음’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 즉 건강하게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자신과 주변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이분들의 ‘좋은 죽음’ 예시를 접하며, 나는 자연스럽게 죽음과 삶의 연결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었다. 유 교수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죽음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내밀하게 연결된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죽음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과정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결국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잘 살아내는 과정의 연장선인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말에 떠오르는 표현들은 여전히 “무섭다, 끝이다, 허무하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와 같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모르는 이유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상가집 대문에 걸린 노란색 등이 무서워서 멀리 돌아가던 어린 시절의 나처럼,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내 삶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된 것 같다.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셨다. 목욕을 하고 점심을 드신 후 우리를 불러 잠시 얼굴을 보시고는 주무시겠다며 나가 놀라고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다. 내가 40대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큰 병 없이 노환으로 돌아가셨기에 병원비는 크게 들지 않았고, 4남매가 돌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아버님 곁을 지켰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나 시아버지처럼 집에서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다. 물론 암처럼 명확한 질환이 있다면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들까지도 과도하게 의료화하여 연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현아 교수는 저서 『죽음을 배우는 시간』에서 이러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죽음을 직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죽음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싸워 이겨야 할 ‘병’처럼 취급하며 병원에 ‘외주화’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죽음이 병이 아닌데도 병처럼 치료받고 있다”며, 연명에만 집중하는 현재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나쁜 죽음’을 만든다고 역설한다.

김현아 교수는 “죽음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명징한 외침으로 죽음의 본질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 대신 삶의 마지막 통과의례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조차 죽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사회 전체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데 서툴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소개한 ‘드라이빙 미스 노마’의 사례는 인상 깊다. 자궁암에 걸린 91세 노마 할머니가 현대 의학 치료를 거부하고 아들 부부와 함께 미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나 친구들을 만나고 베켓리스트를 완성하



는 여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들 부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노마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처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노력은 현재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내리게 한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유언장을 쓰며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사랑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무엇으로 채워갈지’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한 개인의 죽음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기에, 죽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정임을 강조한다. 정치사상사를 전공한 김영민 교수 역시 저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에서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죽음을 상상하고 삶의 선택을 더욱 성심껏 하게 된다고 말한다.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삶은 그런 식으로 소진되며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고 경고했다. 몽테뉴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주는 무서움에 대한 가장 한심한 대응이라 했다. 이러한 지혜들은 결국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케슬러가 『인생 수업』에서 우리에게 던진 강력한 메시지로 귀결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과거를 후회하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는 그들의 조언은 죽음 성찰이 이끄는 삶의 실천 방안을 명확히 보여준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게 된다.

이 모든 성찰을 통해 나는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가장 충실히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 임을 깨닫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언젠가 마주할 현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김현아 교수는 “삶은 매 순간 소중하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일 것이다.[끝]

<참고서적>

죽음을 배우는 시간/ 김현아/ 창비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어크로스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 유성호/ 21세기북스

2025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예선대회

2025.5.24(토)

JIKS 대강당

동남아 남부 협의회

대회 일시

2025년 5월 24일 (토) 오전 09:30

대회 장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JIKS) 대강당

참가대상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중 고등학생(9학년~12학년)
'선착순 100명'

문의사항

puacindonesia@gmail.com

대회 참가신청

- 신청 방법 : 구글 Form 등록(QR Code)
<https://forms.gle/jby2RmTh3QvGF6YQ6>

접수기간

2025년 4월 12일 ~ 선착순 마감

- 이전 대회 우승자는 재참가가 제한됩니다.
- 지난해 신청 후 별도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금년도 신청 가능하나 후보자 등록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QR CODE]



시상내역

- 대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500만 루피아 + 항공권 왕복 (JKT - ICN)
모국방문 한류체험 및 전세계 통일 골든벨 참가자격 및 참가비 일부
(2025년 7월 중 개최 예정)
- 최우수상 (2명) : 상장 및 장학금 300만 루피아
- 우수상 (2명) : 상장 및 장학금 200만 루피아
- 장려상 (3명) : 상장 및 장학금 100만 루피아
- 참가상 (전원) : 통일 골든벨 수료증 및 기념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채움디자인 강수한 대표

“공간을 채우고, 삶을 완성한다”

채움디자인(PT The Chaeum Design & PT Sejin Jaya Lestari) 강수한 대표의 인도네시아 디자인 경영 이야기



채움디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주목받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전문 기업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과 정교한 시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급 주거 공간 및 상업 공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브카시(Bekasi)에 본사를 두고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지 시장에서 디자인과 실용성, 시공력 모두를 갖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강수한 대표는 2002년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문화적 통찰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채움디자인을 설립한 그는, 현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과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지사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산업 및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함께 수행 중이다.

채움디자인은 현대적인 감각에 한국적인 미적 감성을 결합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이 같은 철학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판매법인 사무실(Hyundai Motors Indonesia Office), 남자카르타 삼성전자 개발 사무실(Samsung Electronic Indonesia)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한 채움디자인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공간에 담아내는 전략적 디자인 접근을 실현하고 있다. 자카르타 롯데 쇼핑 애비뉴 내 처음처럼 카페(Chum Churum Cafe)의 브

랜딩 및 공간 기획을 비롯해, 찌까랑(Cikarang)과 자카르타의 가효 레스토랑 프로젝트 등에서도 기능성과 스토리텔링을 아우른 공간 솔루션을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신뢰받는 디자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채움디자인의 비전과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시장의 흐름, 그리고 동남아 전역을 향한 미래 전략에 대해 강수한 대표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공간을 채우고, 삶을 채우다’는 말처럼, 채움디자인이 추구하는 비전과 철학은 어떤 모습인가요?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턴 키 프로젝트(Turn-Key Project)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책임’입니다. 채움디자인은 외주를 최소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Q. 수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채움디자인은 어떻게 그 틈을 비집고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 있다면, 바로 조직 구성의 균형감과 유연한 접근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요 한국인 실무진 5명은 모두 80년대 초반생으로, 경험과 젊은 감각이 공존하는 팀이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특히 채움디자인은 ‘디자인’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어, 동종 업계에 비해 트렌디하고 열린 시각으로 고객과 소통합니다. 흥의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 출신인 총책임자와 영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팀장은 두바이 등 중동권 프로젝트를 경험한 뒤 저희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실내 디자인, 시공, 브랜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어떤 프로젝트를 맡더라도 국제적 감각과 실무 중심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는 인테리어나 건축 전공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제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경영가 관리 포지션에 집중해 왔기에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율해왔습니다. 결국 전문성과 감각, 그리고 균형 잡힌 리더십 세 가지의 조화가 지금의 채움디자인을 만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자카르타를 비롯해 주요 도시 곳곳에 채움디자인의 손길이 닿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표 프로젝트 하나만 꼽자면? 그리고 채움디자인만의 ‘디자인 DNA’는 무엇인지도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단연 현대 자동차 인도네시아 생산공장입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전 세계가 멈춰있던 시기였지만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진출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안고 있었고 채움디자인도 그 일정에 함께했습니다.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현장에 들어가야 했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일정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를 몸소 느꼈고, 저희 팀 역시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정을 맞추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조직 운영의 본질을 깊이 배웠습니다. 동시에 기술력과 책임감의 한계를 스스로 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의 경험은 분명 지금의 채움디자인을 만든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디자인 DNA’는 ‘정제된 감성과 실행 가능한 디테일’입니다. 단지 시각적 완성도가 아니라 실제 시공과 사용을 고려한 현실 기반의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간’이 채움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Q. 대표님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디자인 기업 창업을 넘어 현지 제조업에 몸담으셨던 이력이 인상적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온 것은 2002년 2월 14일입니다. 사실 자카르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인도네시아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오라”는 말에 이끌려, 짐을 싸서 왔죠. 당시 치간칫솔을 OEM 생산해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PT Kang International에서 이미 문 중 형님 세 분이 먼저 와 계셨고, 사람 한 명이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시작한 이 땅에서의 생활이 결국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상 제조업 현장에서 1년 넘게 일해보니, 현실의 무게와 생산의 가치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0대에 다른 업체의 대표님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도네시아 실무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제가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 일의 무게,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에 정착할 거라면 제대로 공부하고 새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에 편입해 졸업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7년간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며 공장장까지 경험했고, 그 시간 동안 비즈니스의 구조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채움디자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창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와 책임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모두 그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터닝포인트는 바로 그 제조공장 시절이었습니다.

Q. 인도네시아의 인테리어 트렌드는 말 그대로 '변화 무쌍'이군요. 최근 주목할 만한 흐름에 어떻게 발맞추고 계신가요?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기업체 중심의 프로젝트가 많고, 전반적으로는 심플하고 미니멀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취향이라기보다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라는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비롯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1인 줌미팅 부스'의 등장입니다. 초기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저희 법인만 해도 10개 이상 설치할 만큼 보편화되었고, 기업들이 아예 인테리어 설계 단계부터 줌미팅 공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인테리어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는 셈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파크랜드 그룹 회장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장님께서 한국 본사 직무실로 저를 직접 초청해 "이 구조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재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책상의 위치부터 나무 결 방향, 꽃이 피는 무늬의 대리석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조건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 법인 직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세심하고 배려 깊은 회장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이 공간에도 고스란히 녹아들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아디다스 크리에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파크랜드 1공장 내에 위치한 이 공간은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한 곳인데, 글로벌 브랜드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지 실정에 맞춘 공간 기획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움디자인은 변화하는 업무 환경, 브랜드 철학,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적 디자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형태가 아닌 본질'을 설계하는 디자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채움디자인은 한국적인 감성과 한국의 미(美)를 인도네시아 스타일로 어떻게 풀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고급 주거 시장에서 '한국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가효' 레스토랑 프로젝트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사례인데요, 한국적인 미감을 살리되 과하지 않게, 미니멀하고 모던한 감성으로 조화롭게 풀어낸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전통 요소를 단순히 복제하기보다는, 소재와 조명, 레이아웃을 통해 공간의 정서와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죠. 고객들도 이런 절제된 한국적 무드를 굉장히 신선하고 고급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상업 공간, 특히 레스토랑 프로젝트가 주력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음 업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업체 사무공간 중심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저희 역시 이에 맞춰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제조업과 일반 기업체 프로젝트는 다소 정체된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엘지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컬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 흐름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단순한 스타일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의 공간 철학을 인도네시아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유연하게 녹여내는 것이 저희 채움디자인이 지향하는 디자인 전략입니다.

Q. 외국에서의 시공은 늘 '예상 밖의 변수'가 가득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인테리어와 건축 시공을 하며 마주한 '진짜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수는 '글로벌 경기의 직격타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 관련 기업들의 인테리어 수요도 동

반 위축되는 구조를 띕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채움디자인은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주목한 것은 바로

‘접근 가능한 상업 공간’ 이었습니다. 예컨대 대형 쇼핑몰 내 팝업 부스, 전시회 부스, 식음 공간의 리뉴얼 등 빠르게 기획되고 실행 가능한 중소형 프로젝트를 집중 타깃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장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움디자인은 친환경 자재, 지속 가능한 설계와 시공에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별 자재 인식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를 유연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친환경 이전에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기본적으로 방염(Fire Retardant) 인증을 받은 자재를 써야 하고, 공공시설일수록 그 기준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자재 선택의 폭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 맞춤 설계에 있어 높은 자유도가 확보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재 선택 폭이 한국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특히 로컬 자재만으로 구성할 경우, 디테일이나 품질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움디자인은 한국 산 고급 자재와 로컬 자재를 믹스해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재는 고객이 꼭 원할 경우 LG의 고기능성 바닥재를 수입해 사용하고, 그 외 일부 부자재나 마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합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냐 아니냐’의 이분법보다는, 고객의 니즈, 유지보수 가능성, 공간의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전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능과 교체 주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디자인 철학’ 이자 ‘운영 전략’ 이기도 합니다.

Q. 대표님의 인문학적 감성과 디자인, 사업 운영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학창 시절의 전공이 지금의 채움디자인 운영에 어떤 ‘숨은 그림’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패션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때는 디자인이 단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제조업과 조직 운영을 직접 경험하면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를 전공하며, 언어뿐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의 채움디자인 운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작업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디자인 감각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통과 관리입니다. 언어를 넘어서, 조직 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의 협업을 이끌어가는 데 인문학적 감수성과 언어적 접근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패션디자인을 공부했던 시절의 ‘보는 눈’, 즉 공간을 구성하는 감각과 디테일을 읽어내는 능력은 지금도 프로젝트 초기 콘셉트를 잡을 때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Q. 혹시 채움디자인에서 산학협력이나 인턴십 같은 ‘젊은 피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신가요? 젊은 인재들과 함께하는 협업이 회사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입찰 기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조입니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성과에 민감하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도 단순히 친환경 자재나 설계 기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 운영의 구조적 지속성까지 포함해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최근 말레이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



으며, 그 과정에서 신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지션별로 협업 방식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산학협력이나 인턴십을 통해 ‘젊은 인재들과의 프로젝트 기반 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회사의 전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특히 저는 ‘적극성’을 지닌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분명 지금의 K-디자인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브랜드’로서의 힘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국적인 미감 자체가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지 ‘한국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성을 어떻게 조율해서 현지에 맞게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적인 결이나 소재, 여백의 미 같은 전통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결을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언어로 번역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디테일을 유지하되, 현지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 코드와 자연스럽게 맞닿게 하는 설계력입니다.

Q. 인도네시아를 넘어 동남아 전역으로, 채움디자인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채움디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의 문화와 수요를 존중하는 디자인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전역에 채움디자인만의 감성과 철학이 담긴 공간들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Q. 바쁘신 와중에도 대표님만의 힐링 루틴이 있으시다면 살짝 공개해 주세요.

저에게 가장 큰 힐링은 운동, 특히 농구와 골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비비자(BBJA, Basket-ball Jakarta Association)라는 교민 농구 모임이 열립니다. 벌써 13년째 활동 중이고, 현재는 6년 째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멤버만 해도 무려 53명에 달할 만큼 규모가 꽤 크고요, 저는 그 안에서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웃음)

농구는 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몰입의 즐거움과 리듬감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골프 역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Q.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이든 취업이든, ‘선배 창업가’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선배’ 라기보다는 여전히 어디서든 막내라는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늘 강조해온 지론이 있다면 바로 ‘적극성과 존중’입니다.

중요한 건 현지인과의 관계입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상대방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 그 한 끗 차이가 많은 문제를 줄여줍니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요.

Q. 끝으로 <한인뉴스> 독자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늘 채움디자인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과 JIKS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뿐 아니라 한인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한인 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KF서포터즈(KFNi) 발대식

KF 자카르타사무소는 지난 4월 17일(목) 2025년도 KF서포터즈(KFNi) 발대식을 한국대사관 영사동 5층에서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서포터즈 14명을 비롯하여 박수덕 대사대리, 강원준 총영사, 최현수 KF 사무소장, 김규년 한국교육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금년도 KF 서포터즈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고, 최근 SNS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에게 격려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최현수 KF 자카르타사무소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문화,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KF 서포터즈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도네시아 내 한국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멤버들은 자기소개와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한식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징어 게임에서 소개되었던 달고나 게임을 직접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KF 자카르타사무소는 이번 서포터즈 선발 및 발대식 개최를 통해 현지 디지털 공공외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대학생을 비롯한 MZ 세대와의 협업 확대와 청년층 친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버디 michelle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향기님들

어느덧, 초록이 무르익어가는 5월이 되었어요.

단내나는 산들바람과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포근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만화방에서 빌려간 재미있는 만화책 보며 맥주를 훌쩍였던, 20대의 내가 생각나는 계절, 향기님들은 기억하는 봄의 냄새나 맛이 있나요? 향기님들, 요가를 (제대로)하면 살이 잘 빠져요. “전체적으로 슬림” 한 몸이 되지요. 요가 동작 전체가 스트레칭이니까 몸의 순환이 빠르고 좋아져서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살이 찌거나 봇기가 있어도, 수련을 하면 금방 원상복구가 되는 몸으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막혀있던 기가 비로소 뚫리면서 손끝세포까지 따뜻해지지요.

대신,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유기체인 몸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려면 최소 1년 정도 꾸준히 강도를 높여가며 수련하는 수고 정도는 해 줘야합니다. No Pain No Gain!

자, 매트 잡고 펼치세요!

오늘 목표는 바로 이 자세!

아르다 찬드라사나 (Ardha Chandrasana), Ardha=Half, Chandra=Moon, 반달자세 (Half Moon Pose) 라고도 합니다.

상체 스트레칭과 밸런스를 요구하는 동작이고 효과는

- ◆ 허벅지 무릎, 발목 근육을 강화하고
- ◆ 몸의 균형감각을 높여주고
- ◆ 좌골신경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 ◆ 코어근육 강화는 물론 소화를 돋고
- ◆ 생리증에는 생리통을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 ◆ 혈액순환을 돋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덤이지요.

효과가 이렇게 어마어마 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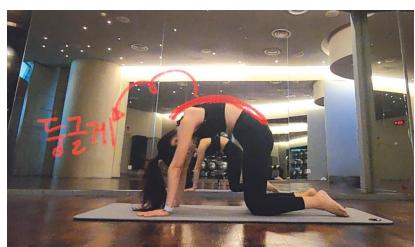
Phase 1 워밍업

1. Cat & Cow (등 동글게 말았다가 반대로 휘기)

2. 팔다리 교차들기

3. 오션웨이브 (다운독-플랭크)

● [Cat & Cow] X 4 set



1. Cat pose (고양이자세)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서 등과 배가 서로 달라 붙게 해요.

2. Cow pose (소자세)

숨 들이쉬며 등을 오목하게 휘게 (Arch로)

● 팔다리 교차로 번갈아들기 X 4 set



3. 테이블탑에서 오른팔 원다리 들기

무릎펴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힘을 줍니다.

4. 반대쪽 들기

시선은 바닥으로

● [다운독 & 플랭크] x 10 set

오션 웨이브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두 동작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면 더 재미있어요!

정확한 동작 설명은 지난호 참조하세요.

그리고 Vinyasa 요가수련에서 반복되는 트랜지션 동작 (단계 사이사이에)

★ Vinyasa Flow (동작 설명은 지난호 참조)

Phase 2 Build-up

● Mandala Flow

Mandala Flow로 목표동작을 위한 빌드업을 해야죠.

1. Mandala flow

2.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3. Chaturanga Dandasana (차트랑가 단다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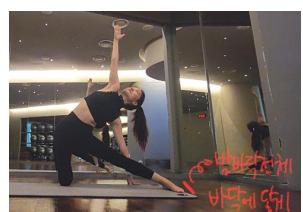
1. 테이블 탑

손너비 어깨너비 무릎너비 같게

3. 원쪽 상체를 열면서

왼발을 매트 윗면과 평행하게 만들고 발바닥 전체로 짚으세요.

4. 가슴을 활짝 열며 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



5. 오른팔꿈치 살짝 구부려 반동주며 오른손 하늘로 쭉 뻗고 시선 하늘



7. 오른팔을 귀옆으로 쭉 뻗어

8. 오른손 그대로 바닥에

오른 다리는 뒤로 방향 바꾸고, 양팔이 일직선이 되게 쭉,
원발은 직각으로 flex

9. 원팔 하늘위로 쭉 뻗어

시선은 하늘

10. 원팔 내리며 테이블탑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눈으로 하는 요가 아니고요,
몸으로 따라 하고 있지요?

● Chaturanga Dandasana (차트랑가 단다 사나) flow



1. 플랭크

몸통 일자로 반듯하게

2. 차트랑가 단다사나

몸통 일자로 유지한 채
팔꿈치 구부려 상체 낮추고

3. 업독

팔꿈치 펴며 등은 아치 만들고
시선은 하늘,
발등으로 딛고 무릎은 떼세요.

4. 다운독

Phase 3 Pre-Pose

잘하고 있어, 목표동작에 가까워지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1. 3 Legged Dog (3다리 개 자세)

2. Warrior 2 (전사 2)

3. Peaceful warrior → Side angle pose (평화로운 전사 → 사이드 앵글)

● 3-Legged Dog (3다리 개 자세) → 크게 돌리기



1. 다운독에서 오른다리를 하늘로 들어

2. 무릎을 뒤로 구부리고

3. 무릎으로 크게 원을 그리세요

● Warrior 2 (전사 2)



4. Warrior 2 (전사 2 자세)

그대로 손을 손과 손 사이로 내려놓으며 손을 앞뒤로 뻗어서
뒷발이 매트 윗면과 평행하게, 앞발은 직각, 골반을 앞을 향해야 해요.
오른다리 직각으로 구부리고 시선은 오른손 끝을 보세요.

● Peaceful Warrior → Side Angle Pose (평화로운 전사 → 사이드 앵글) x 4 set



5. Peaceful Warrior

뒤로 뻗은 손은 허리 감싸고 반대팔은 귀 옆으로
쭉 뻗고, 옆구리를 쭉 늘려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
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전사 2

다시 전사2 자세로 돌아오세요.



7. 사이드 앵글

앞으로 뻗은 팔꿈치를 접어 무릎에 올리고(살짝 올려놓기, 찍어 누르지 않아요) 반대쪽 팔을 귀 옆으로 쭉 뻗고, 시선은 하늘

8. 전사 2

모든 동작은 호흡과 함께 몸이 충분히 스트레칭된 시간을 주며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동작을 우선 정확히 잡는 게 더 중요해. 횟수는 그 이후에 점점 늘려가면 되니까요.

●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Phase 4 Target Pose & Cool Down

그냥 시작해 본건데 여기까지 왔어요!

와, 정말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칭찬 428번! 드디어 목표 동작인데 여기서 그만두긴 아깝잖아요, 자!

1. Ardha Chandrasana(반달 자세)

2. Chaturanga Dandasana(차트랑가)

3. Savasana(시체 자세)

● Ardha Chandrasana (반달 자세), 블록 사용 ok



1. 전사 2



2. 오른손 바닥, 왼손은 허리 짚어



3. 왼발을 몸통으로 점점



4. Ardha Chandrasana (Half Moon Pose, 반달자세)

오른발로 단단하게 무릎을, 오른손은 살짝만 짚어, 균형 잡기 어려우면 블록을 사용해도 됩니다.

콜반과 가슴을 전면으로 활짝 열어야 해요. 윈다리는 땅과 평행하게, 발목 flex. 시선은 처음에 바닥을 보다가 균형이 잡히면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자, 10초만 유지해 보자!

● Chaturanga Dandasana (차트랑가) 단단사나) flow → Vinyasa Flow

● Savasana 우리가 사랑하는 사바사나!



끄읃! 오늘도 해냈어요. 대단해요!

5월에는 장사도 대박나고 주식도 꽉꽉 오르고 성적도 쭉쭉 오르고 살도 쑥쑥 빠지고 머리숱도 풍성하게 차오르고 지식도 차오르고 피부도 차오르고 하여간 좋은 일은 다 생기는 그런 한 달 될 겁니다.

힘내시고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Michelle Yang



남반구의 작은 유럽, 바람의 섬 태즈매니아

조은아 (한인뉴스 편집위원)

멜버른을 거쳐 시드니를 가기 전에 오랜 지인이 사는 태즈매니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그저 아이들이 태즈매니아 데블이라는 멀종 위기의 요상한 동물을 보고 싶어 한다는 핑계를 얹었을 뿐이었다.

멜버른 질롱에서 저녁 페리를 타고 밤새 달려 동살이 비칠 즈음 데본포트에 도착했다.

배에서 함께 내린 태즈매니아의 주민들이 서둘러 사라지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 렌터카 직원이 출근하길 기다리며 페리에서 담아 온 뜨거운 물로 컵라면을 끓여먹었다. 남호주의 선선한 가을 바람과 일출이 어울어진 기막힌 이 순간에, 집에서는 입에도 대지 않던 컵라면이 이리도 맛나다니 헛웃음이 났다.

호주의 품에서 남쪽으로 240km 벗어나 있는, 남한 크기의 3분의 2, 인구 50만의 이 적막한 땅 태즈매니아는 어떤 곳일까. 새벽빛이 밝아지며 반짝이는 하늘과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을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바빠졌다.

렌터카 직원은 자신을 꽤 기다렸을 우리를 위해 예약한 차보다 더 크고 좋은 차의 열쇠를 주고는 웃으며 배웅했다. 우리는 데본포트에서 서남쪽으로 2시간여를 달려 크레이들 마운틴으로 향했다. 인가가 드문 시골길과 목장길을 따라 작고 큰 언덕을 여러 번 넘고, 커다란 산맥을 넘고 나니 멀리 질푸르고 웅장한 산이 눈에 들어왔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산, 크레이들 마운틴과 사랑에 빠지다

태즈매니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크레이들 마운틴(Cradle Mountain)은 이름 그대로 요람 같은

산. 태고의 시간을 간직한 이곳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태즈매니아 원시 자연 지역(Tasmanian Wilderness World Heritage Area)의 일부다. 온대 우림이 빽빽한 저지대부터 알프스 식물과 습지, 고산 식물과 바위 지대의 산 정상까지 희귀한 동식물들로 가득 차 있다.

산 중턱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시 셔틀버스를 탔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며 운전기사는 구수한 입담으로 곳곳의 볼거리를 설명한다. 왈라비와 웨벳과 포셈 등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의 환호가 터졌다. 우리는 셔틀 버스의 종착지인 도브 호수(Dove Lake)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한 그 이상, 그 어떤 사진에서도 본 적 없는 숨 막히는 경관을 마주했다. 첫 사랑이 떠올랐다.

크레이들 마운틴의 심장과 같은 도브 호수는, 태즈매니아의 첫 코스였던 그곳은, ‘내가 죽기 전 꼭 다시 와야 하는 곳이구나’라는 전율로 넋을 잃게 만들었다.

빙하가 녹아 만들어졌다는 호수는 어떤 것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는 예술 작품 같다. 맑고 깊은 물, 거기에 비친 크레이들 마운틴, 호수를 둘러싼 푸른 숲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실물만큼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았다. 맑다 못해 투명하게 느껴지는 하늘과 폐 속까지 스며들 것 같은 초록의 기운을 느끼며 호수를 따라 걸었다. 흥분된 내 숨소리를 자연의 숨결로 진정시키며 걷는 걸음은, 단순한 트래킹이 아닌 자연의 품 속에서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새삼 되새기는 의식과도 같았다. 약 6km에 이르는 Dove Lake Circuit를 걸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사



했다. 운 좋게도 현존하는 포유류 중 가장 원시적인 동물이라는 가시두더지echidna와 월라비도 만났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우리는 이곳에 허락된 반나절이 너무도 아쉬웠다.

호바트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지인과의 약속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발길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다. 호바트로 향하는 내내 우리는 ‘꼭 다시 오자’를 만 번쯤 얘기했다.

황금빛 벌판에서 천국을 만나다



크레이들 마운틴에서 남쪽으로 300여Km 떨어진 호바트(Hobart)로 향하는 길은 태즈매니아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고요한 시골 마을과 평화로운 농장, 끝없는 평원 사이로 길은 이어진다. 산을 내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 셰필드(Sheffield)는 ‘벽화의 마을’이라 불렸다. 건물마다 손으로 그린 농부의 얼굴, 증기기관차,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과 풍경화들이 펼쳐져 있었다.

스치듯 셰필드를 지나 우리는 다시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들판 사이를 달렸다. 캠프벨타운까지 이어진 미들랜드 하



이웨이(Midland Highway)는 드넓은 초원과 구릉지대로 이어져 있었다. 햇살은 평원 위로 부드러운 황금빛을 내었다. 하늘과 대지는 넓었고 소들은 느리게 풀을 뜯었으며 말들은 순한 바람처럼 자유롭게 거닐었다. 양떼들은 평온하게 햇살을 즐겼다.

가축들의 평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달리다 우리는 잠시 비를 만났다. 이 또한 스치듯 지나가는 비였다. 그런데 비가 간 후 우리는 또 천국을 만났다. 초록과 황금 햇살이 어울어진 대지에 완벽한 반원을 그리며 무지개가 떠오른 것이다. 하나들이 아니었다. 캠프벨타운에서 리치몬드를 지나 호바트에 다다를 때 까지 우리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무지개 길을 달렸다. 4시간은 바람처럼 지나갔다.

남쪽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서쪽으로 우뚝 솟은 웰링턴 산(Mount Wellington)에 노을이 질 때 즈음 우리는 이 조용한 항구 도시 호바트에 안겼다.

리Lyn과 짐Jim, 그리고 조지George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린과 짐은 보고르의 작은 국제 학교 부부 교사였다. 지금은 은퇴 후 호바트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얼굴을 마주한 것은 십 년 만이지만 린과 짐은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퍼스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야생 동물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 태즈매니아로 돌아온 그들의 딸, 조지 부부도 함께 했다. 우리 작은 딸이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것을 린이 기억하고 일부러 딸 내외를 부른 것이었다.

조지는 지난해 태즈매니아로 돌아왔다. 오면서 남편감을 데리고 와서는 린과 짐의 농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여느 신부들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고 태즈매니아를 닮은 초록빛 멜빵바지에 정원에서 딴 꽃으로 부케를 만들었다. 아버지 짐과 함께 짐의 애마인 농장 트랙터로 신부 입장장을 했다. 어머니 린이 직접 요리를 하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접시들을 들꽃으로 장식해 내었다. 친오빠 앤디가 찍은 결혼 사진에는 그 어느 결혼식보다 행복함이 묻어났다. 그 누구의 결혼식보다 아름다웠고 부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동물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조지의 ‘멸종 위기 동물 구조 실화’에 푹 빠져들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내내 주로 태즈매니아의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을 주제로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니… 흥미롭고 놀라웠다. 그리고 조지는 앞으로도 우리집 꼬맹이와 자주 동물소식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다.

태즈매니아는 여려모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에서 행복을 찾게 하는 곳이었다.



호바트 사람들의 성소, 웰링턴 산에 오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발 1,271m의 웰링턴 산 (Mount Wellington)으로 향했다. 태즈매니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이 산은 산 정상과 호바트 시내의 기온이 10도나 차이가 난다. 우리는 먼저 구름이 덮고 있는 산 정상을 향해 구불구불한 숲길을 달렸다. 온대 우림과 빽빽한 유칼립투스 길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로 뒤덮인 또다른 세상의 절경이 펼쳐진다. 열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게 쪼개진 바위들과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식물들이 하얀 서리로 단장하고 펼쳐져 있었다. 이 산은 호바트인들에게 성스러운 곳이자 별이 내려오던 장소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던 영혼의 언덕이었다는 린의 말이 이해가 되는 광경이었다. 웰링턴 산은 단지 높은 언덕이 아니라 호바트라는 도시를 품고 지켜보는 그들의 성소였던 것이다. 정상을 만끽한 후 우리는 중턱으로 내려와 숲길을 걸었다.

유칼립투스와 사사프拉斯, 고사리 나무들이 촘촘히 엉켜 햇살 한 줄기조차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숲길을 걷다보니 마음 속의 소음도 사라지고 오직 나뭇잎의 속삭임만 들리는 듯 했다. 껌질을 벗고 하얀 기둥을 들어낸 태즈매니아의 유칼립투스는 보통 키가 30m~55m정도 되고 가장 큰 나무는 90m까지도 이른다. 키다리 유칼립투스가 빽빽한 산책길은 바람으로 향기로 사람을 훨렸다. 그새 하늘도 맑아졌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햇살 받은 나뭇잎들이 반짝 반짝 빛이 났다.

고요한 역사의 도시 호바트

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차를 숙소에 세워두고는 호바트 시내를 또 걸었다. 호바트는 태즈매니아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로 1804년 영국인들이 범죄자들을



포트 아서



태즈매니아 데블



호바트 살라망카

이곳에 유배시키면서 그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새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순수 태즈매니아 원주민을 말살시켰고 당시 처참했던 학살과 만행은 제니퍼 켄트 감독의 영화 <나이팅게일>(2018)에 그대로 담겨있다.

하지만 지금의 호바트는 예술과 역사, 현대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작은 유럽을 연상케 했다. 호바트 초기 식민지 시대의 별장들이 남아있는 배터리 포인트(Battery Point)를 시작으로 나폴레옹 St., 크롬웰 St., 마린 테라스, 켈리 St, 등의 예쁜 집들을 구경하며 살라망카로 향한다.

살라망카 거리에는 조지아 왕조 시대의 창고들이 그 고풍스러움 그대로 예술품 상점과 예술가들의 아틀리에, 카페 등으로 변신해 있었다. 국회 의사당 앞 공원에는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가을빛 낙엽들이 흘날리고, 바로 앞 설리반스 베이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소형 선박들이 지중해를 연상케 했다.

호바트는 정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도시였다. 남편과 나는 태즈매니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전통 맥주를 골고루 사들고 숙소에 들어가 밤 늦도록 태즈매니아 찬사를 나눴다.

다음 날은 남동쪽으로 차를 몰아 언주(UnZoo)에 들러 멸종위기의 태즈매니아 데블을 만나고 늘지대를 탐험했다. 아이들은 이 까만 주머니 고양이(태즈매니아 데블)를 만져보고 싶어 했지만 동물시체만을 파먹고 괴팍하다는 조련사의 설명과 제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다시 린과 짐을 만나 역사 깊은 유적지 포트 아서(Port Arthur)를 둘러보았다. 19세기 영국에서 유배 온 죄수들이 수감되었던 교도소 유적지로 당시 그들이 생활했던 감옥, 교회, 가옥들이 꽤 잘 보존되어 있었다. 벽돌 하나하나, 나무문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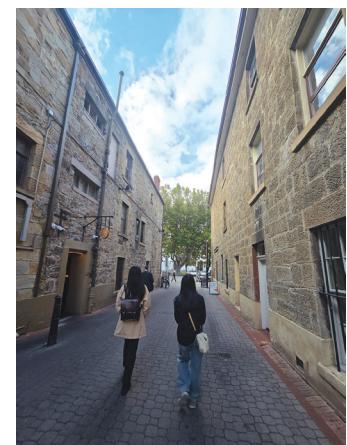
다, 침묵한 채 흘러간 그들의 절망 그리고 희망이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짐은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번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자세하고 재밌는 설명으로 꽤 인기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오면 서툰 인니어로 그들을 더 즐겁게 만들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곳...

태즈매니아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의 섬이 아니었다. 태즈매니아 데블, 왈라비, 에뮤, 웜뱃 등 4,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이 땅에서 보호받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이곳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섬의 40%이상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태즈매니아 야생 지대(Tasmanian Wilderness)’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자연유산, 수천 종의 생명들이 공존하는 대자연의 정원이자 풍부한 역사를 지닌 유적지이며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곳이었다. 태즈매니아를 걷다 보면, 문득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산 속에서, 평원에서, 거리에서, 바다에서 인간과 자연이 오래도록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고요하고도 강한 소망의 땅이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이곳에 부를 강력한 마력의 땅이었다.



호바트 거리

[취미부자 열정고수]



K-pop 추고 가드 올려

윤정빈 (태광실업)



#딸바보 #윤다윤 #윤아윤 #가족바보 #체력이자주방전
되는마마님호위무사 #수경아사랑해♥ #UFC복근탈환작
전 #풋살 #무예타이 #댄스 #인라인 #복싱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슬픈 K-대디! 풋살, 무예타이, 댄스, 인라인에 복싱까지. 주말부부로 가족들과 떨어져 일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나는 매일 다시 가드를 올린다. 아빠 뱃살 나왔다고 맨날 운동하라는 딸들의 귀여운 잔소리를 생각하며. 쿠션처럼 두툼한 뱃살이 나를 슬프게 한다. 마마님은 운동하라고 용돈까지 주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우아한 경고'란 걸.



주중에는 수방에서 회사생활,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신데렐라 아닌 '아빠데릴라'의 에너지는 집에 오면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충전된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인 취미 부자지만, 자꾸 귀가 팔랑거려서 문제. 젊을 때 한주며 했던 복싱 마니아답게, 복싱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오라. 미트 잡아주며 복싱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다.





르바란에 싱가포르 센토사에 루지를 타러 갔다.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땐, 아내와 내가 한 명씩 앞에 태우고 탔었는데 10살이 된 딸은 혼자 탑승하고, 둘째는 아직 보호자 동행이 필요해 내가 같이 탔다. 루지 타기 전 둘째 아윤이가 물었다. “아빠, 무서워?” 나는 귀염동이 둘째에게 속삭였다.

“아니, 아빠는 우리 아윤이 위해 가드 올렸어.”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며 바라본 하늘과 땅,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내 삶이 바로 록키의 OST가 흐르는 전투의 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오늘도 나는 운동화 끈을 조인다. 몸이 무겁고 귀찮아도, 딸들이 기다리는 내일을 위해. 내일은 더 가볍게, 더 강하게. K-pop 추고, 가드 올리고, 삶의 링 위로 다시 오른다.





[반려꼬꼬] 닭 쫓던 브래디, 미노 따라 삼만 리

이름 : 미노

나이 : 2024년 8월 8일경 입양

닭품종 : 수컷



수컷인데 애가 아래도 되나?

닭 하면 새벽마다 “꼬끼오!” 울어대는 게 국룰인데, 미노는 다르다. 울음 대신 울음 대신 ‘모닝똥’으로 아침을 깨운다.

“여긴 내 구역이닭!”

작년 10월, 새집으로 이사한 뒤 미노의 세계가 더 넓어졌다. 사방이 논밭, 온갖 풀과 벌레가 가득한 자연 놀이터. 낮에는 동네 탐험가처럼 여기저기 누비다가 밤만 되면 정확하게 집으로 복귀하신다. 그리고 마당 의자 위에 작고 소중하지 않은 흔적(?)을 남긴 채 또 홀연히 사라진다. 아침이면 의자 위엔 미노표 깜짝 선물, 미노 본인은 이미 또 출근 완료!



“미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병아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귀여운 미노. 이제는 위풍당당한 수닭이 되었지만, 가끔은 혼자라서 외로울까 걱정된다. 그래서 집사 김브래디(만 6세)는 요즘 길 가다 닭 무리만 보면 속으로 중얼거린다.



“미노도 플레이데이트가 필요한데…”

닭 쫄던 브래디, 멀어져 가는 미노 바라본다.

“닭 쫄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집엔 약간 다르게 쓰인다.

남들은 ‘강아지 산책, 고양이 쓰다듬기’ 할 때, 우리 브래디(만 6세)는 반려꼬꼬 미노를 따라다니기 바쁘다. 논이고 밭이고 뛰어다니며 “미노오오오!” 외치고, 손 짓하고, 먹이 흔들어도 미노는 “그거 먹을 시간에 메뚜기나 더 잡아야지”란 표정으로 푸다닥 날갯짓하며 가버린다. 하지만 오늘도 미노를 보며 행복한 브래디. 그래도 꿋꿋한 닭 집사 브래디! 닭 쫄아다니며 행복하다.

닭과 대화도 한다. 닭한테 뽀뽀도 한다.

닭 집사 프로필

이름 : 김브래디 (만 6세)

특기 : 써핑, 자전거 타기, 엄마 아빠 심부름 + 미노 지킴이

취미 : 미노 밀착케어



#애지중지키운내꼬꼬들
#미노는내새끼
#수컷인데안울어
#미노탐험기
#닭도반려동물입니다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자카르타 중심에서 미래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다 래플스 크리스천 스쿨(Raffles Christian School)

글: 배희진 (RCS 교사)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 자카르타에서, 래플스 크리스천 스쿨(RCS)은 우수한 학업 성취도, 인성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교육으로 빛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설립 이후, RCS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신뢰받는 국제학교 중 하나로 성장해왔으며, 높은 교육 수준과 탄탄한 도덕적 기반,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캠브리지 커리큘럼 기반의 견고한 교육 철학

래플스 크리스천 스쿨은 Pondok Indah, Kelapa Gading, Kebon Jeruk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유아부터 주니어 칼리지(고등학교 상급 과정)까지 55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이 중 한국인 학생은 80명이다. 규모가 작은 학교이지만 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RCS는 Raffles Group of Schools에 속해 있으며, Cambridge Early Years부터 Primary

Checkpoint, Lower Secondary Checkpoint, IGCSE, A-Levels에 이르기까지 영국 캠브리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 교육을 제공한다. 모든 캠퍼스는 캠브리지 공인 국제학교 및 공식 시험 센터로 등록되어 있어,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RCS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학업 지도, 인성 중심 교육, 따뜻하고 체계적인 학사 시스템에 한국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직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

RCS는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사회성, 인성 면에서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학교의 비전인 “**정직함과 탁월함을 갖춘 학자, 리더, 그리고 기업가를 양성한다**”는 학교 운영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준비시킨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은 정직, 배려, 책임감, 존중 등의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세계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

RCS의 또 다른 강점은 대학 진학 및 진로 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학교의 전문 진로 상담 교사들은 9학년(중3)부터 학생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진로 탐색부터 전공 선택, 대학 지원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 특례 입학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입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한국 학생들의 특례입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졸업생들의 입시 전례를 분석해 보면,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University College London
- 미국: UC Berkeley,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한국: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등등
-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Sydney
-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등이다.

<최근 5년간 졸업생 중 한국인 졸업생들의 입시 성과>

2020년 총 8명 한국대학 6명, 일본 1명, 홍콩 1명

2021년 총 6명 한국대학 2명, 영국 2명, 미국 1명, 싱가포르 1명

2022년 총 6명 한국대학 5명, 캐나다 1명 (Full scholarship of Toronto U.)

2023년 총 13명 한국대학 13명(서울대 2명)
2024년 총 11명 한국대학 10명(서울대 2명), 미국 1명

외국인 가족을 위한 친화적 환경

RCS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가족들이 쉽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입학 초기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수준별 수업이 제공되며,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정착한 국제 학생들과 함께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동시에 자신만의 문화적 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받는다.

매년 개최되는 '인터내셔널 데이(International Day)'와 같은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교실을 넘어선 다채로운 배움

RCS는 배움이 교실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실천한다.

학생 주도의 환경 보호 캠페인 및 자선 프로젝트, 싱가포르, 영국, 한국 등과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 및 혁신 도전,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및 각종 학문 경시대회 준비 등 방과 후 활동, 리더십 훈련, 지역사회 봉사,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된다.

더 넓은 미래를 향해

2025년 7월에는 **Branz Apartment Simatupang**에 **유아과정 전용 캠퍼스**가 새롭게 오픈될 예정으로, 남자카르타 지역의 더 많은 가족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래플스 크리스천 스쿨은 앞으로도 **가치 중심의 고 품질 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을 핵심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학업적 우수성은 물론, 강한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학비 정보

유치부 Rp 110m, 초등부 Rp 150m, 중등부(G7~10) Rp 180m, 중등부(G11~12) Rp 190m

www.raffles-international.org

한국어 상담 +62 831 6865 2141 (배희진 선생님)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두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글: 고성환, 정성환(ILT 공동대표)

두 번째 이야기

앞서 저희는 회사의 창업 배경과 철학,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흐름을 바탕으로, 저희 일트가 직접 현장에서 체득한 거시적 투자 전략과 구조화된 실행 방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전환기(Transition Period)'입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 (2003~2023년)

기간	금리변화 (%)	인플레이션율(%)	부동산 가격 동향	주요 요인
2003~2008	3.25 → 5.25	3.0~4.5	서울 아파트 가격 지속 상승	경제 성장, 주택 수요 증가
2008~2010	5.25 → 2.00	2.8~3.2	상승세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소비 심리 위축
2010~2018	1.25 → 1.75	1.0~2.5	원만한 상승	저금리 기조 유지, 투자 심리 안정
2019~2021	1.75 → 0.50	0.4~1.5	급등	초저금리, 유동성 공급 확대
2022~2023	0.50 → 3.50	3.0~4.0	상승세 둔화 또는 일부 하락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2025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1. 고금리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 운용 전략의 리셋을 요구합니다.
2. 전세 제도의 약화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 주거 방식과 금융 구조의 전환입니다.
3.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일시적이 아니라 도시화와 인구 집중이라는 인구 구조적 흐름의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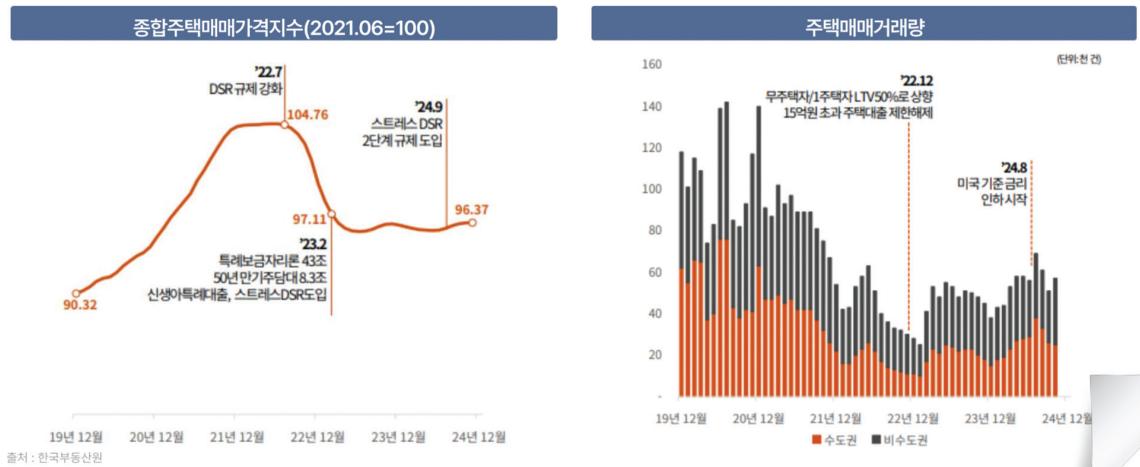
투자자는 단기 가격 변동보다, 지금의 '구조 변화'를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역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대출 규제 등 일부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시장을 진정시키고 수요를 유도하려는 의도된 정책 방향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입지에 대한 매수 심리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는 공급 병목 현상을 장기화시키고, 결국 질 높은 주택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요 측면에서는 1~2인 가구 증가, 청년층의 실거주 수요, 외국인의 서울 집중 선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의 고자산가 유입도 제한적이나마 존재합니다.
- 자금 흐름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2024년 4분기 이후 일부 중견 건설사 및 리츠(REITs)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유동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편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 와 ‘시장 심리’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투자자는 비효율적인 시장의 빈틈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상승할 때, 투자에 기회가 생깁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 ‘돈의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줄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현금을 가진 이가 구조를 설계하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 급매는 많고, 매수자는 줄었습니다.
- 낙찰가율은 낮아졌고, 경쟁률은 낮아졌습니다.
- 대형 플레이어는 움츠렸지만, 준비된 소형 투자자에게 시장은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라, ‘설계’의 시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2024년 말 기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의 팽창과 함께, 부실채권(NPL)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정보 분석과 법률적 구조 설계 역량이 요구됩니다.



투자 전략

투자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 만들기

- Exit 전략이 두 가지 이상일 것 (매각 + 전세 / 임대 + 리모델링 등)
- 외부 펀딩, 공동 투자 구조, 대부업 협업 등 리스크 다각화

2. ‘매수’ 보다 중요한 ‘운용’ 중심 사고

- 가격보다도 명도, 리모델링, 운영 수익 확보 전략이 더 중요
- 단순 매매보다 임대 수익, 법적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

3. ‘정보 비대칭’을 설계로 이기는 전략

- 공매, NPL, 복잡한 물건일수록 수익률은 높다
- 복잡한 구조를 읽고, 단순화해낼 수 있는 실행력이 중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묻습니다. “언제 다시 오르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판’을 짜고, 누군가는 ‘기회를 사들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1920년 독립운동가 장윤원, 자바에 첫발을 디다:

예술의 향기를 따라서 걸다

박승현 (ACS Jakarta, G10)

지난 3월 22일, 한인니문화연구원 제342회 문화탐방이 자카르타 멘텡(Menteng) 지역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1920년, 독립운동가 장윤원. 자바에 첫발을 디다: 그가 걸었을 예술의 향기를 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탐방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사에 관심 있는 교민들이 다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한국 독립운동가, 장윤원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걸었던 길을 예술과 역사적 공간을 재구성해서 직접 경험하는 데 있었다. 탐방은 멘텡 일대 장 선생의 거주지 인근에서 시작되었고, 『한인 100년사』 집필 이전, 한인니문화연구원이 선행적으로 추적했던 주요 건물과 장소들을 연결하며 도보로 진행되었다.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한인뉴스 학생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길을 걸으며 과거 역사 인물들이 지나던 자취를 따라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특히 문화탐방에 함께한 주니어 평통 승현군

이 무척 대견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탐방을 비롯한 한인니문화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에 더 많은 한인과 재외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예술이 살아 숨 쉬던 TIM (Taman Ismail Marzuki)

멘텡은 과거 네덜란드 동인도 시절, 유럽인들을 위한 고급 주거지로 조성된 곳으로, 당시 수많은 예술과 문화를 꽂고 있는 지역이었다. 탐방단은 먼저 인도네시아의 대표 예술 공간 ‘파만 이스마일 마르주끼(Taman Ismail Marzuki, TIM)’를 방문했다. 이곳은 전설적인 인도네시아 작곡가 이스마일 마르주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근현대 낭만주의 화가 라덴 살레(Raden Saleh)의 별장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현재 TIM은 자카르타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전시와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천문관을 비롯한 문화적 명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대학로’로 불리며,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예술의 심장 같은 공간이다.



TIM 방문 후, 탐방단은 도보로 오랜 역사를 지닌 카페를 찾았다. 이 카페는 본래 1878년에 다른 장소(잘란 하얌 우룩)에서 시작되었으며, ‘밥보다 커피가 좋다’는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 커피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장윤원 선생님도 어쩌면 이 거리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겼을지도 모른다”는 사공경 원장의 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시간을 거스르는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찌끼니 우체국 (Cikini Postkantoor)과 장윤원이 머물던 저택

잠시 후 탐방단은 인근의 찌끼니 우체국으로 향했다. 이곳은 과거 유럽인들의 편지와 물자를 연결하던 네덜란드 식민지 윤리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유서 깊은 장소와 가까운 곳이다. 오늘날엔 카페로 바뀌었지만, 외관과 내부 구조 곳곳에서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근처에 살았던 장윤원 선생님이, 조국에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이곳과 가까운 Pasar Baru Pos에도 가지 않았을까요?”라는 말을 주고 받으며 탐방단은 과거의 한 독립운동가가 이 땅에서 존재했다는 역사적 실감을 깊이 느꼈다. 이후 탐사대는 과거 장윤원 선생의 저택이 있었던 자리로 이동했다. 현재는 <Gedung Dana Graha>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당시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 자리에 선 채, 모두가 잠시 침묵 속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뚜구 꾼스끄링 팔리스 (Tugu Kunstdring Paleis)와 물타툴리

탐방단은 마지막으로 점심은 예술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뚜구 꾼스끄링 팔리스(Tugu Kunstdring Paleis)’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1913년 네덜란드-인디 예술 그룹의 전시장으로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위원회의 본부, 이후 출입국 관리소로 사용되다가, 2013년 99년 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특별한 장소다. 이 건물에는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 네덜란드 작가 물타툴리 (Multatuli)의 흔적도 남아 있다. 그는 《막스 하벨라르 (Max Havelaar)》라는 소설을 통해 네덜란드의 식민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는 후날 영화로도 제작되어 ‘아시아에 평화를 부른 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이번 문화탐방은 단순한 ‘답사’ 그 이상이었다. 소수 정예 인원으로 진행되어 더욱 밀도 깊고,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함께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윤원 망명객이 문화·예술을 논했을 TUGU에서, 그를 기리며 예술을 통해 역사에 다가가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경험. 바로 그것이 이번 탐방의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한인들이 이 땅 위의 한국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종교법(Hukum Agama)

한인 선교사 5~6백명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는 없으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약 86%가 이슬람신자라서 이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란이 비어 있는 KTP 용납하지 않으며, KTP의 종교란에 반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로 인정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인정한 모든 종교의 큰 명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서 종교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종교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의하여,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뻬아감 자카르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이 자까르따 헌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 1.1.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신에 대한 신앙)
-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인간박애 정신)
- 1.3. 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일국가)
-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Perwakilan (대의정치)
- 1.5.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고,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 기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



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두)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으로 간주되며 2(두)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법 제165a조는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옷, 음식, 음료,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플렛, 불례틴, 잡지,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평계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끌라빠가딩)	7591 4414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546 0234
SPH (땅그랑)

897 2786
(찌까랑)

7590 3342
RICS

0812 971 2306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750 3062
LYCEE Int. FRANCAIS

3004 2885
JIPS

744 4860
JIMS

390 4137
PAKISTAN EMBASSY SCHOOL

780 5636
ACG 국제학교

780 7313
ICSCE

7590 8820/50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Sinarmas World Academy(SWA)

0812 8689 2897
SWA BSD

2993 7234
SWA Thamrin

● 유치원

765 6588
Hansol Kids

7179 4787
Brain School

2276 4497/7203 356
Bambino (Cipete)

8351 540
사랑유치원

8445 283
하나유치원

5576 7509
꿈나무유치원

● 골프장

0251)827 1888
BOGOR RAYA

5591 1111
CENGKARENG

8459 5687
CILANGKAP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0254)385 319
KRAKATAU

552 9228
MODERN

800 5762
PADANG GOLF HALIM

8795 4888
PALM HILL

751 3326
PANGKALAN JATI

8795 1787
PERMATA SENTUL

740 5382
PONDOK CABE

769 4906
PONDOK INDAH

0251)827 1212
RAINBOW HILL

0251)824 2282
RANCAMAYA

475 4732
RAWAMANGUN

867 1528
RIVER SIDE

8088 8999
ROYAL JAKARTA

0267)644 730
SEDANA

5020 8088
SEDAYU

8796 0266
SENTUL HIGHLAND

0811 1586 873
SUVARNA

549 6371
TAKARA

● 골프교습

801 2048
Easy Golf

7013 8166
골프투어 자카르타

570 3063
심스골프

781 7679
배준원골프교실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무궁화 본점	722 2214		
골프투어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무궁화 찌꺼랑점	0851 0075 2214		
수출입은행	525 7261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무궁화 뿐독인다점	7590 5488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JR SALON	7279 7906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신한은행	2975 1500	Hair Perm	7280 140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 가구							
죠지언 퍼니처	2276 688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쟈르헤어	7279 6998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선스파	021-2793-3625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 변호사 사무소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무궁화 꼬파 바루점	022-8680 2262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건설 중장비 웹탈	08111 43437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무궁화 뽀루잇점	0811 841 4188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부동산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그린 부동산	726 4949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리초부동산	6896 7249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바람소주	0858 8831 1218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스폰지	7095 4771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아시아 진주	7278 8327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Good Deal Gallery	573 6233	• 병원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관준한의원	739 7854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0813 1630 5312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무궁화 뿐띠아낙점	0812 5623 112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무궁화 꾸님안점	0821 1448 0988		
서울렌트카	6870 9335	Central Clinic	2709 9272	무궁화 고본주룩점	0813 8610 8800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한성렌트카	889 0471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 병원					
링크렌트카	9583 1000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무궁화 쯔빠까마스점	0818 839 846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RS. BUNDA	322 0005	무궁화 뿐독빼낳점	0811 8822 891		
	0811 956 2500	RS. GRAHA MEDIKA	530 0887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RS. MEDISTRA	521 0200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뉴부산슈퍼(땅그랑)		RS. M.M.C	522 5201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만나슈퍼(버까시)		RS. PONDOK INDAH	765 7525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 식당							
가마골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무궁화 끄망점	021 722 7214		
가야성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무궁화 찌뿌뜨뜨라점	0821 1448 0988		
감미옥		Matahari Klinik	722 6391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강촌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월드마트	8430 2535		
강남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하나마트	8459 0064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Since 1994

DOOWANG과 함께 가면
면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스타일	2952 8443	0812 5723 7627 (WA)
깜닭	4584 5837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0811 887 5705 (WA)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우리들 552 4047
다온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유가네 2221 3392
다미	4585 0040	연안수산 0811 8880 1374
대장금	0816 885 956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도마 식당	0858-5555-6510	예원 021-7212-0533
대가	8459 2871	이차돌 0811 1838 310
대가야	547 5511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대감집	723 3315	주막 0821 7210 0452
마포	7279 2479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종가레스토랑 551 3273
명가면옥	8990 4552	지원갈비 021-7212-0436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미추홀	6583 1472	찬찬 0812-1060-4848
명가면옥	0254-849 3571	청기와 0858 1377 3388
면의전설	521 0230	청기와 726 1924
명가면옥	2751 0800	청담가든 0815 7342 5802
미가	0818 85 8026	청해수산 527 8721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미스터 박	5140 1142	토박 725 1135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태능갈비 7055 0888
버까시 서울	8895 7604	테라스 가든 8493 9321
베이징	0254-837 0242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보신명가	789 0220	한옥 0254-385 588
본가	739 6229	한마당 5577 6770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하나 0254-393 2146
삼원가든	2988 9505	하누 021 722 2365
산정(찌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한남동 0819 9994 0995
상하이	5573 5550	한상 (PIK) 0812 8881 1532
서울	4585 4454	홍대포차 726 4999
설악추어탕	2937 5435	홍콩반점 0812 8787 4928
산들	5579 5821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 신문
산정 까북	3005 1650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산해진미	5577 8182	한인포스트 4586 9199
서울일식	546 0840	JAKARTA POST 530 0476
서라벌	3825 0401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 안경원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 여행사
소래포구	8990 5051	나래여행 5296 0749
수하루	5577 8585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수달	0821-4007-7256	굿데이투어 4586 0598
아리수	0254-781 0059	그린관광 798 3322
양대팔	0856 9226 9933	Red Cap 5797 3397
알리사	0254-60 1430	Rodem Tour 4587 8833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5150 7734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콜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현지 살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리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리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룸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an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 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 컨설팅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 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	----------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파뜻하다 ...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찔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옥)	0811-951-762

반 등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리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풀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슬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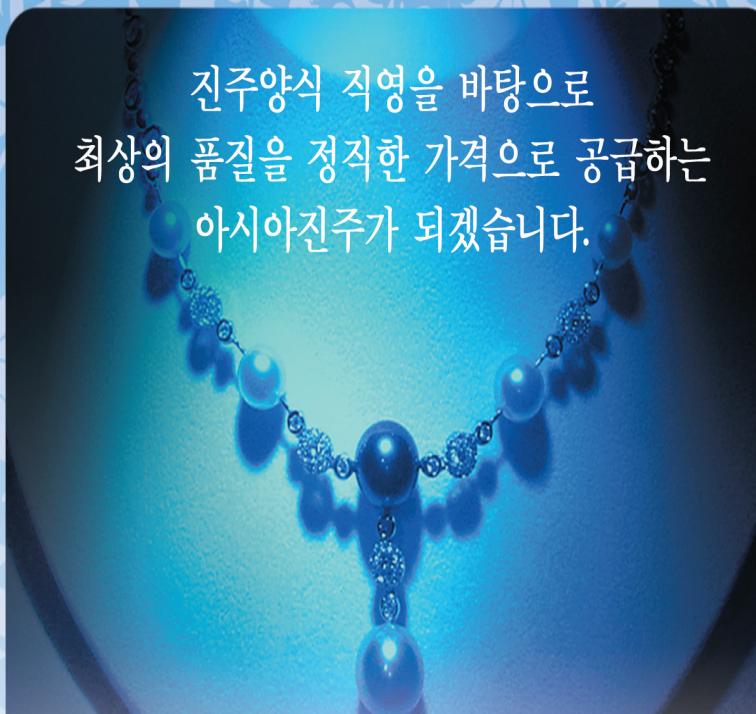
• 종/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개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대전고(윤내선)	426 2954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 975 205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연세대(김민철)	0816 864 677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영산대(최재혁)	590 0401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휘문고(맹종호)	0818 973 986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 대학교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위	성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현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동한인회 [022) 200-2154]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차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헌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세계 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Represent the True Heart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Vote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투표장소 Voting Place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신분증명서(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